

2015년 중장년 재취업 우수 성공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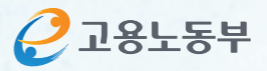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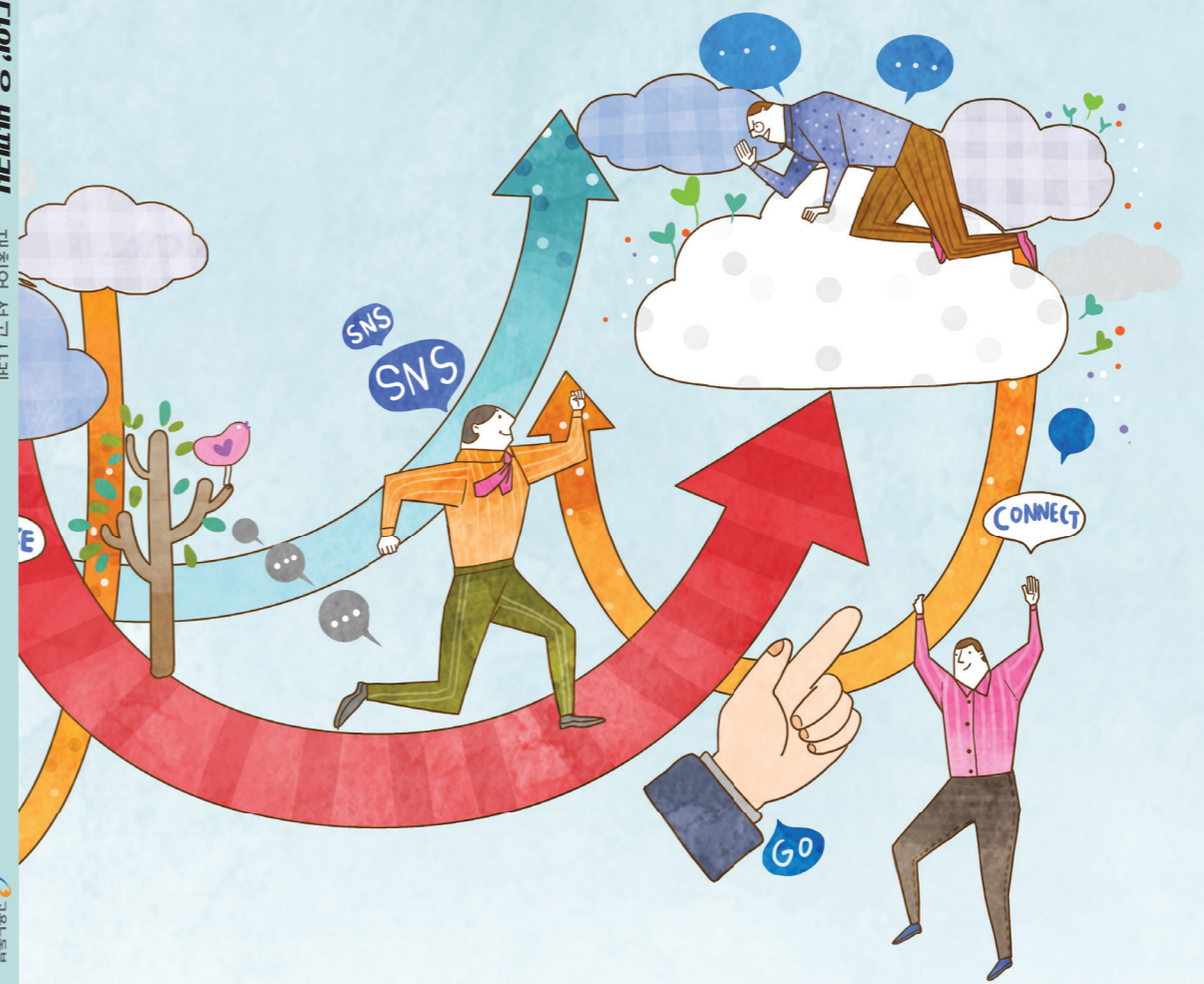
‘페러다임’을 바꿔라!

-재취업 성공사례-

2015년 중장년 재취업 우수 성공사례

‘페러다임’을 바꿔라!

-재취업 성공사례-



Contents

인사말 / 4

재단소개 / 5

기관 전화번호 안내 / 98

01 길은 있다! 중장년 재취업 체험기

우수 성공사례 인터뷰

(주) P서비스 / 최귀옥 / 08

(주) 성신ENC / 옥종석 / 14

(주) 신한방 / 진영배 / 20

순천만 요양병원 / 송희숙 / 24

포항 제일끼꼬어린이집 / 임옥녀 / 28

사례 소개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김시환 / 32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양현영 / 34

경북동부경영자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이강섭 / 36

“나는 준비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 인천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김기태 / 38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송윤영 / 40

노사발전재단 부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이미순 / 42

02 특집 금융인력경력개발사업부

인터뷰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금융인력경력개발사업부 / 최성희 / 46



03 중장년 취업과 함께 크는 기업

우수 성공사례 인터뷰

(주) 원컨덕터 대표이사 / 지상현 56

사례 소개

서울환경운동연합 / 김효주 / 62

평안정공 (주) / 이종완 / 64

(주)캐슬렉스 제주 / 서종식 / 66

04 희망 코디네이터, 중장년 커리어 컨설턴트

인터뷰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배정미 / 70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노희승 / 76

취업지원 모범사례, “내가 컨설턴트다.”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박혜연 / 82

노사발전재단 인천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한명진 / 84

노사발전재단 경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마계희 / 86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최진숙 / 88

노사발전재단 강원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김현주 / 90

경북동부경영자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김성수 / 92

대한은퇴자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이인순 / 94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최수진 / 96



희망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새로운 일터를 찾고, 삶의 새 장을 연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자랑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희망의 거울 하나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비춰보십시오.
우여곡절을 건너온 역전의 삶이 보일 것입니다.
초롱하고 불타는 눈빛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 실린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이 책장을 넘기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함께 할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갑시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엄현택(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

우리회사 맞춤인재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
찾으세요!



홍보대사 홍요섭

-  전담 기업전문가 상담
-  업·직종/직무별 인력풀 보유
-  기업맞춤 중장년 인재추천
-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풍부한 중장년의 노하우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연락주세요.

전국 11개 지역에서 맞춤인재를 무료로 추천해 드립니다.

노사발전재단 | 홈페이지 : www.4060job.or.kr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 대표번호 : 02-6021-1100



01

길은 있다!
중장년 재취업 체험기





우수 성공사례 인터뷰

(주) P서비스 / 최귀옥 / 08

(주) 성신ENC / 옥종석 / 14

(주) 신한방 / 진영배 / 20

순천만 요양병원 / 송희숙 / 24

포항 제일끼꼬어린이집 / 임옥녀 / 28

사례 소개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김시환 / 32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양현영 / 34

경북동부경영자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이강섭 / 36

“나는 준비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 인천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김기태 / 38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송윤영 / 40

노사발전재단 부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이미순 / 42



01 길은 있다! 중장년 재취업 체험기

현 · 장 · 에 · 서 · 만 · 난 · 사 · 람

100세 시대, 준비 없는 노년을 맞을 순 없죠

최귀옥 57세·(주)P서비스

57세의 여성 세탁부. 대규모 세탁 서비스 공장이라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인물이다. 그런데 ‘전직 은행원’이라고 하면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다. 게다가 남편과 두 아이까지 모두 번듯한 직장인이라면, 의아한 눈길은 더욱 많아진다. ‘그런 사람이 왜?’ 최귀옥 님의 답은 명쾌하다. “다가오는 100세 시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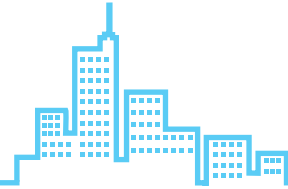
이제 다시 시작이다

갑작스러운 한파 때문에 행인들의 발걸음마저 뜰해진 어느 날의 저녁 무렵이었다. 입김을 호호 날리며 자택 근처의 한 카페에 들어서니 먼저 와 있던 최귀옥 님이 환한 얼굴로 맞아준다.

“죄송해요. 밤 9시나 되어야 퇴근을 하기 때문에 회사 근처에서는 뵙기가 어려워서...”

사흘 일하고 하루 쉬는 일정. 아침 7시 40분에 출근해서 저녁 9시가 되어야 끝나는 빡빡한 근무다. 게다가 평생 ‘사무직’ 일만 했지, 순전히 몸을 써서 하는 일은 생전 처음이다. 하지만 최귀옥 님의 얼굴에서는 ‘힘들다’라는 하소연보다는 ‘이제 다시 시작이





다’ 하는 의지가 훨씬 크게 묻어나왔다.

최귀옥님은 결혼 전까지 지금은 우리는 행으로 이름이 바뀐 상업은행에서 6년 6개월 간 행원생활을 했다. 은행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은행의 꽃이라 불리는 창구 업무를 주로 맡았고, ‘친절한 은행원상’을 받았을 정도로 능력과 서비스정신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소위 ‘경단녀’(경력 단절여성)가 되고 말았다. 그러다 작은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가 되니까 슬슬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 초등학교 과학 조교로 취업이 되어서 7년간 일을 했다. 과학 조교가 하는 일은 과학 실습교재 구입과 과학 실습 보조 역할이다.

그리고 서울시청 정보통신과, 교통상황실, 농수산과 등에서 계약직으로 꾸준히 일을 하며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고,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경리업무를 맡아 3년 동안 일했다.

10개월 동안 쉬면서 느낀 것은, 다시 일해야 한다는 것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기도 한 최귀옥님이 지금 직장으로 옮기기 전까지 일했던 곳은 ‘천주교 인천교구청’. 신부님을 보필하는 업무를 3년 7개월 동안 하다가 올해 1월

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만두고 말았다.

“몸이 안 좋았어요. 갑상선 쪽에 갑자기 혹이 생기더니 점점 커지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낭종이라고 하더군요. ‘암’은 아니었지만, 몸이 불편해서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딸과 아들, 남편도 휴식을 권했다. 따지고 보면 결혼과 육아 때문에 쉬었던 기간을 제외하면 오랫동안 일을 놓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주변 사람들도 ‘아들 딸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남편도 돈 잘 버는데, 이제 그만 쉴 때도 됐다’고 권했다.

결국 최귀옥님은 생애 처음으로 10개월이라는 긴 휴식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못해 봤던 것도 실컷 했다. 국내 여행은 물론, 딸과 함께 동유럽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성당 봉사활동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했다. 그렇게 마음 폭 놓고 쉬니까 갑상선 낭종도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역시 휴식이 보약이었다. “그런데 10개월 동안이나 쉬니까 몸이 근질근질해지더라고요. 제가 원래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제는 100세 시대잖아요. 아직 환갑도 안 됐는데 이렇게 손 놓고 앉아서 노년을 맞이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01 길은 있다! 중장년 재취업 체험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장년일자리희망넷과의 만남

그녀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년일자리희망넷과 만났다.

“처음 장년일자리희망넷을 발견했을 때는 신세계를 만난 것 같았어요. 아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 소개 좀 시켜줘라’ 하면서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갈 만한 일자리 정보가 가득했거든요. 이력서 쓰기, 면접 요령 등 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도 많았죠.” 하지만 나이라는 걸림돌은 예상보다 훨씬 큰 장애물이 되었고, 취업의 문은 좀처럼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장년일자리희망넷을 통해 꼭 일하고 싶은 회사가 눈에 띄었다. 급한 마음에 담당 기관인 노사발전재단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 만난 컨설턴트가 바로 해당 기업을 담당하던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서울서부센터) 권혜영 차장이었다.

“본래 권혜영 차장님은 기업 담당자였는데, 제가 그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그쪽 담당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제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제 상황에 맞춰서 직접 상담도 하고 취업을

위해 나서주니까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면서 뭔가 기쁨이 생긴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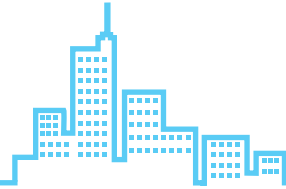
최귀옥님이 꼭 일하고 싶었던 곳은 국내 항공사에서 나오는 시트와 무릎담요 등의 각종 세탁물을 다리고 관리하는 회사였다. 평생 해왔던 사무직은 아니었지만, 1~2시간 정도 초과 근무를 하면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가 보장된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권 차장님을 통해 이력서를 넣고 나름 희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익숙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동안의 제 이력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죠. 그런데 막상 돌아온 대답은 ‘정년이 3년도 채 남지 않아서 채용이 어렵다’ 하는 것이었죠. 역시 ‘나이’ 때문에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절당한 회사를 직접 찾아가 재취업 성공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권 차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어렵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좀 찾아봐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런데 권 차장이 뜻밖의 권유를 해왔다. 비록 나이는 많지만 아직 정년까지는 몇 년의 기간이 남아 있으니 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취업에 대한 의지와 그동안의 경력을 설명해주면 의외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





는 조연이었다.

‘57세’라면, 사실 어떤 회사에서도 흔쾌하게 취업을 받아들일 나이는 아니었다. 한 마디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나이는 아니라는 뜻. “속으로 ‘직접 찾아간다고 해서 별다른 효과가 있을까?’ 하는 망설임은 있었지만 권 차장님의 격려에 용기를 냈죠. 언뜻 차장님의 말씀에서 ‘여러 번 권유를 해봤는데 나이 때문에 다소 망설이는 것 같기는 해도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더라’ 하는 느낌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스스로 용기를 내서 찾아간 곳이

바로 김포공항 인근에 있는 (주)P서비스였다.

당시 인사 담당 상무는 서류심사에서 떨어진 사람이 직접 본사까지 찾아온 열정에 감탄을 하고 시간을 내어 면접을 봐주었다. 그리고 최귀옥 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류를 다시 꼼꼼히 살펴본 다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평가를 내려주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일하고 싶어요” 하는 최귀옥 님의 이야기에 “저도 꼭 뽑고 싶어요” 하고 화답을 해주었다.

결국 인사 담당 상무는 최귀옥 님에게 집에서 먼 본사가 아니라 비교적 가까운 다른 곳을 추천해주었다. “제가 전화를 해놓





01 길은 있다! 중장년 재취업 체험기



을 테니 가서 제 이름만 대면 됩니다” 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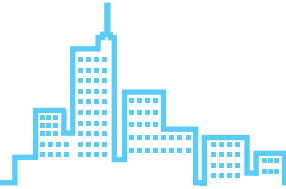
엄마 출근시켜주는 딸 밥 차려주는 신랑

이처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를 온몸으로 보여준 최귀옥님은 이제 막 한 달째 근무를 하고 있다. 아침 7시 40분까지 출근해서 잔업까지 처리하면 보통 저녁 9시쯤 되어야 일이 끝난다. 3일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이라 그동안 해오던 성당 일도 예전처럼 하기가 어렵고, 생전 처음 해보는 몸 쓰는 일이라 아직은 적응도 제대로 못한 상태지만 이 역시 삶에서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할 산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힘들죠. 상무님 덕분에 집 가까운 곳으로 배치를 받았지만, 대중교통으로 다니려면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다행히 딸아이가 아침마다 저를 먼저 출근시켜주는 덕분에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저 힘들게 일한다고 신랑이 밥도 해주고, 저녁마다 상을 차려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아진 점도 있네요. 하하하.”

동유럽이며 일본이며 호주까지 엄마를 모시고 여행을 다녀준 착한 딸이다. 한 달째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신을 도와주려 애쓰고 있는 신랑과 아들





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크다. 새벽잠 줄여가면서 출퇴근을 시켜주는 딸에게 무엇보다 감사한다는 최귀옥 님. 물론 무엇보다 고마운 분은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서울서부센터 권혜영 차장이라고 강조한다.

사실 최귀옥 님은 지금 상당한 고민 중이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지만,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 여러 모로 조건이 달라서다. “본래 5시 반 퇴근인데, 그게 제 맘대로 안 되네요. 잔업을 하다 보면 늘 저녁 9시나 되어야 끝나거든요. 일이 힘든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데, 제 생활이 아예 없어지는 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어렵게 들어왔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야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과연 이것이 최선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다시

권 차장님과 상의를 해봐야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

최귀옥 님은 중장년 재취업에 있어서 구직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좋은 사례다. 인터뷰 내내 최귀옥 님이 강조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있지만, 나이 든 여자들이 재취업하기가 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직접 부딪쳐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서류만 내놓고 기다리지 말고 전화라도 한 통 더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반응이 오더라고요. 취업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





01 길은 있다! 중장년 재취업 체험기

현 · 장 · 에 · 서 · 만 · 난 · 사 · 람

어려움에 처한 회사 내 힘으로 살려내겠습니다

옥종석 46세·(주)성신ENC

잘 알려진 영어 속담 가운데 ‘A willing burden is no burden.’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말로 하면 ‘자진해서 지는 짐은 무겁지 않다’는 뜻이다. 회사 상황이 어려움에도 옥종석 님을 선택한 성신ENC와 회사가 어려운 줄 알면서도 기꺼이 입사를 결정한 옥종석 님은, 어찌 보면 회사의 재도약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파트너다. 하지만 그 짐은 결코 무겁지 않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 일, 네 일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하고 있는 중

듬직한 체구에 사람 좋은 웃음. 성신ENC 사옥 마당에서 만난 옥종석 님의 첫인상이다. 한때 보험영업으로 톱을 달렸던 힘이 어찌면 바로 저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먼저 식사부터 하고 말씀 나누실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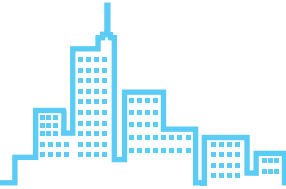
그리고 보니 점심시간이었다.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자리를 잡았다. 인근에 있는 몇 개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마치 ‘구내식당’처럼 운영하는 곳이었다. 성신ENC의 마크를 단 사람들과 함께 몇몇 회사의 로고들이 눈에 띄었다. ‘이곳이 바로 공단이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닫게 해주는 풍경 속에서 함

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출근한 지 이제 3개월째 접어드네요. 바로 엇그제 입사한 것 같은데, 벌써 겨울이구나……. 본래 해외 영업을 맡기로 하고 입사를 했는데, 지금은 국내 영업을 비롯해서 가리는 일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경력직이긴 하지만, 신입이니까 네 일 내 일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옥종석 님이 성신에 입사하기 전 직업은 ‘보험영업맨’. 한때는 월 4,000만 원씩 ‘입금’을 했을 정도로 잘 나가는 영업맨이었다. 꽃피는 봄날처럼 좋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갑작스러운 부친의 ‘폐암 선고’였다.





“작년(2014년) 3월에 부산에 계시던 아버님이 동아대병원에서 폐암 말기 선고를 받으셨어요. 마침 어머니도 몸이 안 좋았고, 나머지 형제들도 아버님을 모시고 다닐 상황이 안 되었죠. 다행히 보험 영업은 ‘개인사업자’니까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다 동아대병원보다는 국립암센터가 더 나은 것 같아서 아버님을 인천 저희 집으로 모시고 일산 암센터를 다니시게 했죠.”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에 만난 노사발전재단 인천증장년일자리희망센터

안타깝지만 옥종석 님의 부친은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보니 이미 대부분의 고객이 떠난 뒤였다.

“원래 보험이 고객의 마음을 잡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1년 가까이 아버님 병수발 드느라 고객관리에 소홀했더니 거의 다 떠나고 말더라고요. 섭섭하지는 않아요. 당연한 일 이니까. 그렇잖아도 대면 영업에 지쳐서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하던 차라, 이참에 차라리 직업을 바꿔야겠다 하고 결심을 했죠.”

제일 먼저 시도한 일은 ‘기사자격증 따기’였다. 본래 전자공학을 전공했지만, 비교적 취업이 쉬운 것 같은 전기기사자격증에 도전



01 길은 있다! 중장년 재취업 체험기



해서 올해 5월에 취득에 성공했다. 하지만 막상 자격증을 따고 보니 생각처럼 취업이 쉽지 않았다. 어느덧 45세에 접어든 나이도 걸림돌이 되었지만, ‘현장 경험’이 없다는 게 큰 걸림돌이 되었다.

“당당하게 자격증을 따고 나서 전기기전이나 전기기사 자리를 찾아서 여러 번 취업 시도를 했죠. 그런데 어디를 가나 ‘경험’이 문제가 되더군요. 게다가 막상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열악한 처우 조건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렇게 취업 전선 앞에서 고전하고 있을 때 노사발전재단 인천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인천센터)를 알게 되었다. 옥종석 님이 먼저 손을 내민 게 아니라 인천센터에서 먼저 이메일을 보내왔던 것이다. 곧바로 회원 가입을 하고, 담당 컨설턴트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고급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 한편 인천센터에서 하는 재취업 관련 특강도 열심히 듣고, 항상 두 귀와 두 눈을 재취업 정보에 열어두었다. 그러다 한명진 담당 컨설턴트로부터 굿 뉴스가 날아들었다. 인천센터와 남동산단이 주최하는 채용박람회가 열릴 것이라는 소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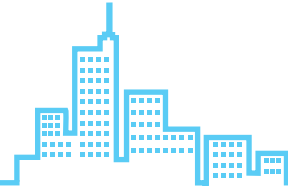
채용박람회에서 만난 인연 성신ENC

“사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군데의 채용박람회를 다녀봤지만 큰 소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고민했죠. 그런데 한명진 컨설턴트님 얘기를 들어보니 이번 박람회는 기존 박람회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남동공단에 위치한 50여 개의 업체들이 모여서 주로 40~50대의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박람회라는 거예요.”

의구심을 말끔히 털어낸 옥종석 님은, 컨설턴트의 조언에 따라 이력서와 각종 증명서 등 서류들을 꼼꼼히 챙겼고, 면접을 대비한 예상 질문들까지 뽑아보며 열심히 준비했다.

드디어 D-Day가 다가왔다.

“말끔한 면접 복장으로 박람회장으로 향하던 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지원하는 ‘해외영업’ 분야에서 현장 면접이 가능한 업체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성신ENC가 마



침 해외영업 파트의 과장을 채용한다고 해서 1번으로 면접을 봤는데, 너무 긴장한 탓인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1주일 후 임시 합격이라면서 최종 사장님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온 경험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시다.”

옥종석 님과 새로운 인연을 맺은 성신 ENC는 15년 이상 압력솔 내솔 제품에서는 상당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한때 연 매출을 200억 가까이 올리기도 했다. 그런데 오랫동안 꾸준한 매출을 올리던 OEM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자가 모델 상품을 출시했는데, 전문 영업조직의 부재로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지방대의 한계 딛고 삼성전자 입사

그런데 보험영업맨 출신이 해외영업을 지원했다?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드는 순간, 옥종석 님이 그 의문을 풀어주었다.

“제가 사실은 ‘영어’로 원어민들과 프리토키가 가능합니다. 군 제대하고 한 2년간 밖 세계 공부한 덕분이죠. 해외유학이나 어학 연수는 한 번도 안 가보고 순수 국내에서만 공부해서 토익 850점대를 올렸습니다. 지

금이야 이 점수가 별것 아니겠지만, 1997년 당시에는 제법 엄청나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찌면 지방대 출신이 삼성전자에 입사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영어실력을 인정받은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보니 옥종석 님의 첫 직장은 현존하는 국내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의 연구원이었다. 하지만 타고난 성격이 한 자리에 머물기보다는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성격이었던 덕분에 사내 마케팅 팀 지원자를 모집할 때 응모해서 당당하게 자리를 옮겼다. 연구원으로 4년, 마케팅 분야에서 3년, 그렇게 삼성전자에서만 7년을 일했다.

“연구원은 한 분야만 파니까 시장 보는 눈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마케팅 팀은 시장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서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사내 인력으로 마케팅 팀을 뽑는다니, 얼른 나섰죠. 경쟁률이 10대 1이었는데 운이 좋았는지, 제가 뽑혔어요.”

그렇게 시장을 보는 눈을 익히고 나니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2004년 과감하게 삼성전자에 사표를 내고 인터넷 사업을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서 사진을 인화해주는 사업이었는데, 전국 어린이집 졸업 앨범 만들어주는 회사랑 연결이 된 덕분에 사업을 크게 벌였죠. 기계도 들여놓고, 직원도 7~8명씩 두





01 길은 있다! 중장년 재취업 체험기

고…… 그런데 결국은 그 회사에서 7억 가까운 돈을 받지 못하면서 부도가 나고 말았죠. 그렇게 생긴 빚이 자그마치 4억이었어요.”

결국 모든 사업을 접고, 2006년 12월 한화생명(당시 대한생명)에 입사했다. 그리고 2년 동안 미친 듯이 일해서 4억 원의 빚을 다 갚았다. 다행히 2009년부터는 집에 생활비를 가져다줄 수 있게 되었고, 한때 월 4,00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정도로 톱을 달리기도 했다. 그러다 부친의 폐암 선고와 함께 보험영업만도 접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사실 성신ENC의 상황은 썩 좋지는 않다. 해외영업을 맡기 위해 입사를 했지만, 바이어를 새로 발굴하는 등의 일은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다.

“입사할 때 이미 알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기가 곧 나의 재기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자진해서 지는 짐은 무겁지 않다’는 영어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를 통해서 회사가 살아나고 분위기도 좋아진다면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지 않던가.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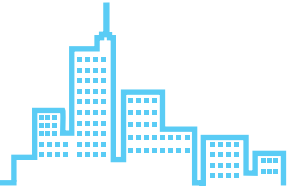
종석 님은 성신ENC 입사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다.

“사실 저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인천센터와 한명진 컨설턴트 님과의 만남 덕분에 그런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포기했다면 이런 기회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중학교 2학년 딸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옥종석 님은, 지금도 재취업을 위해 마음 졸이고 있을 구직자들에게 경험에서 우러나는 조언을 남겼다.

“구직자들은 병을 고치러 병원에 온 환자와 같습니다. 센터와 컨설턴트는 그런 분들을 마음으로부터 보듬어주는 의사와 같은 존재죠.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문지도 보내주고 의논을 해주니까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구나’ 하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말고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센터와 컨설턴트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원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







01 길은 있다! 중장년 재취업 체험기

현 · 장 · 에 · 서 · 만 · 난 · 사 · 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합니다.”

진영배(49세, (주) 신한방 지원팀 전기엔지니어)

이제 우리사회도 더 이상 종신고용이 보장되는 사회가 아닌 지 오래다. 수시로 이루어지는 기업의 구조조정 탓에 젊음을 바쳐 일 해온 직장을 하루아침에 떠나게 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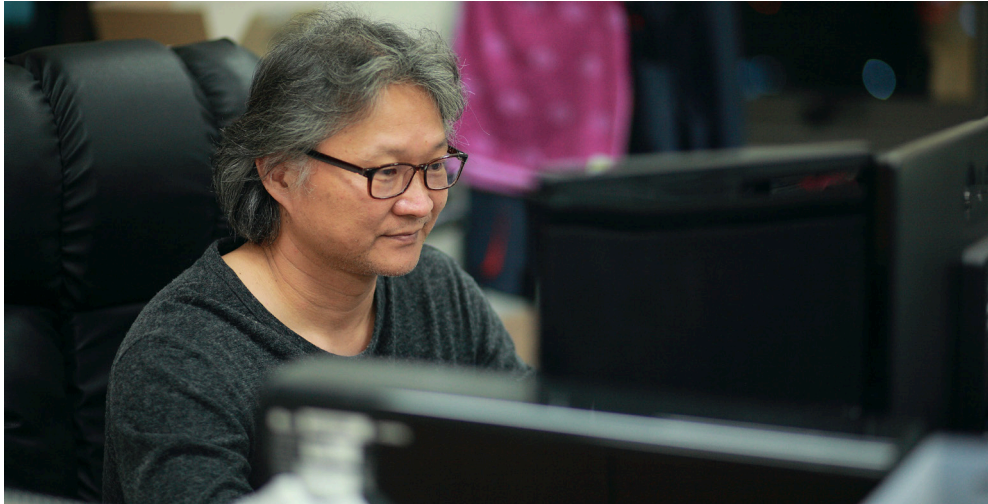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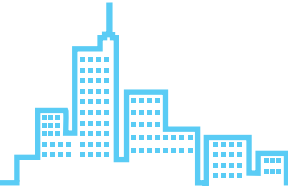
진영배님도 25년 동안 몸담았던 회사에서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막막한 절망 속에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개인별 맞춤 전직지원서비스’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그의 두 번째 인생.



눈물을 머금고 떠난 회사

지난 7월말 진영배님은 전주페이퍼라는 제지회사의 공무원 전기파트에서 퇴직했다. 이십대 초반부터 만 25년 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잃게 된 것이다. 구조조정계획은 한 달쯤 전에 갑작스럽게 알려졌다.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회사를 떠난 삶을 상상해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는 가족 이외에는 회사가 전부였다. 가족의 생계도 물론 걱정이었지만, 내 집처럼 여겼던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다. 그러나 결단해야만 했다. 회사의 형편이 어려워 구조조정을 한다는 마당에 앞날이 창창한 젊은 후배들을 남겨두고 선배들이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그는 생각했다.





막상 퇴직을 결심하고 나니 막막했다. “너무 부담할 뿐이었죠. 하루빨리 새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도무지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더군요.” 그러나 마냥 그렇게만 있을 수는 없었다. 가족들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지금까지 사는 동안 늘 그의 든든한 벗이자 후원자였던 아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3학년 아직 어린 두 아이. 가족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전직지원서비스’ 컨설팅, “눈높이를 낮추세요.”

진영배님이 노조위원장의 소개로 알게 된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전북센터)를 찾아간 것은 퇴직중 얼마후인 지난 8월초였다. 그곳에서 모운이 컨설턴트를 만나 1대1상담을 받게 되었다. 모운이 컨설턴트는 우선 그에게 자신의 퇴사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일부부터 시작하라고 충고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다. “눈높이를 낮추셔야 합니다. 그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중년의 나이에 새로 직장을 물색하다 보면, 회사의 규모나 본인의 직급, 급여 등 모든 면에서 마음에 차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새 직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직지원서비스 컨설팅은 경력진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희망직무분석 등으로 진행되었다. 자문 받은 대로 이력서에는 공무전계팀에서 25년간 전기 분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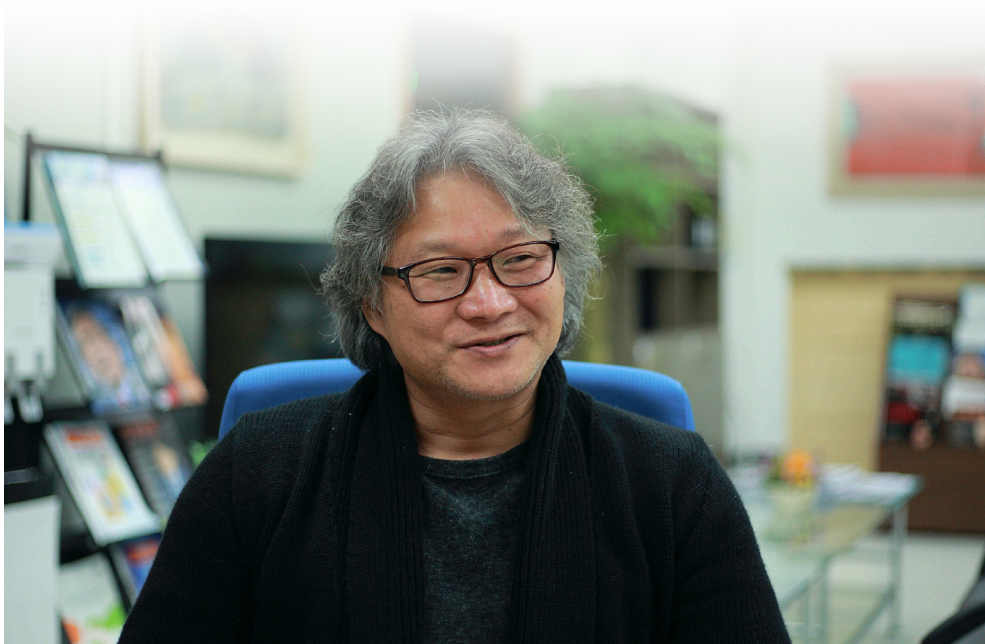
01 길은 있다! 중장년 재취업 체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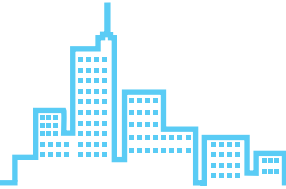
경력을 쌓아온 것을 강조하였다. 전문경력이라 어느 회사에 가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각했다. “늠이 다 된 나이에 30년 만에 이력서를 쓰려니까 쉽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이력서가 너무 영성했는데, 모운이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이력서를 준비할 수 있었죠. 구직 컨설팅이라는 게 이래서 꼭 필요하구나 하고 실감했습니다.”

전북센터에서 구직서류작성과 면접요령 등에 대해 컨설팅을 받고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열심히 한 덕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로부터 꿈에도 기다리던 합격통보를 받았다.

낮선 환경, 낯선 동료들에 의한 스트레스

진영배님은 지난 10월부터 새 직장으로 출근하고 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변화된 환경, 낯선 사람들에 둘러싸여 지내는 근무시간이 힘들었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혼자서 감당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25년 동안 한술밥을 먹으면서 피붙이처럼 지내던 사람들로 부터 혼자 떨어져나와 있다는 고립감을 견뎌 내야 했다.





전에 다녔던 회사는 국내 굴지의 제지회사로서 대기업이었다. 새로 다니게 된 회사도 대기업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환경이 예전 회사만 못한 것도 사실이다. 급여도 두 배 가깝게 차이가 난다. 이런 변화는 경제적인 궁핍함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상실감도 뒤따른다. 아이들은 커나가고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은 늘어만 가는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 그러니 아내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새 일터에서 일구는 새로운 희망

그러나 그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는다. 다시 시작하는 삶, 두 번째 인생에 충실하겠다고 거듭 다짐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노력하다 보니 새 직장과 새로 사귄 동료들에게 점점 정이 붙기 시작했다. 실직생활을 오래

겪지 않고 불과 두 달 만에 이만한 직장을 얻어 이만큼 잘 적응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은 저와 가족들에게 분명히 시련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저 자신이 지난 몇 달 동안 더 단단하게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겪더라도 이겨낼 자신 있습니다.”

변함없이 그에게 힘이 되어주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도 빼놓지 않는다.

“저 못지않게 어려울 텐데 힘든 내색하지 않고 잘 견뎌내 주고 오히려 저의 재취업을 마음을 다해 격려해주는 아내와 아이들이 제 희망입니다.”

진영배님의 씩씩한 새 출발을 응원한다. /

✦ 개인별 맞춤형 전직지원서비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전직지원서비스는 실업에 의한 상실감을 겪고 있는 심리적 변화관리와 개인별 진단을 통해 자신의 직업능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경력 전환의 방향을 함께 모색해준다. 특히 1:1 개별 상담 및 교육을 통해서 개인별 목표설정 및 역량강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컨설팅, 구직면접 능력향상, 심리안정 프로그램, 구인정보 등 개인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01 길은 있다! 중장년 재취업 체험기

현 · 장 · 에 · 서 · 만 · 난 · 사 · 람

“나이는 숫자일 뿐이죠, 당당하게 다시 도전하세요.”

송희숙(54세, 순천만요양병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틈틈이 공부하여 늦은 나이에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4년 만에 실직의 아픔을 겪은 송희숙님. 사실상 재취업을 포기하고 있던 상태에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재도약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했다. 그리고 야간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다. 당당한 직장인이자 늦깎이 대학생으로 또 하나의 꿈을 키우고 있는 그녀를 만나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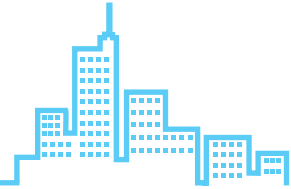
주경야독,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

전남경영자총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재도약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간호조무사로 재취업한 송희숙님은 슬하에 딸(25세)과 아들(22세)을 둔 결혼 26년차 주부다. 결혼 전부터 운영해오던 미용실을 결혼 후에도 계속하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그만두었다.

타고난 성격이 적극적이고 성실한 덕분에 단골손님도 꽤 많은 편이어서 경영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할 때라고 생각했다. 한참 자라는 두 아이에게 엄마의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할 시기라는 점도 작용했다.

몇 년 동안 전업주부로 지내던 그녀는 지





난 2003년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다. 순천 시립도서관에서 대출자가 반납한 도서들을 정리하는 일을 하기도 했고, 순천시 보건소에서 전산자료를 입력하는 일도 했다. 2009년부터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밤에 공부하며 간호조무사 시험을 준비했다. “나이가 많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일수록 안정적이고 당당하게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따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죠.”

그녀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야겠다고 마음먹은 데에는 딸의 영향도 있었다. 송희숙님의 권유로 당시에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던 딸을 보면서 자신도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송희숙님의 딸도 현재 순천 시내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늦은 나이에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지만,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2011년에 시험에 합격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스스로가 대견했다.

실직과 재취업 성공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지 4년 만에 병원의 재정난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송희숙님은 그때의 상실감과 절망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



라고 말한다. 젊은 시절부터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지내던 그녀로서는 가계의 어려움보다도 일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것 자체가 무척 힘이 들었다. 그러나 오십대 중반의 경력단절여성에게 재취업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지레 포기했다. 그런 상태로 몇 개월을 지내던 중 2015년 4월에 전남경영자총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재도약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다.

송희숙님은 재도약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 작성방법, 면접 요령교육, 성격검사, 웃음치료 등 교육을 이수하며 재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01 길은 있다! 중장년 재취업 체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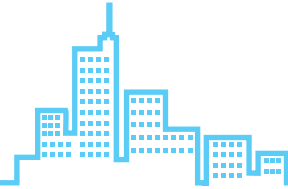
있었다. 그 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안내를 받아 현재 일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에 합격하여 8월부터 근무하고 있다.

다시 취업한 직장에서도 그녀의 노력은 남다르다. 행여 나이가 많아서 업무적응이 느리다는 평가를 받거나 동료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노력한다. 75명에 달하는 병동 환자들의 얼굴과 이름을 줄줄이 외우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꼼꼼하게 보살핀다.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의 환자를 돌보는 일은 월급만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와상으로 누워있는 환자에게는 욕창이 걸리지 않게 체위변경을 해주고, 연하곤란(음식 삼키기 장애)이 있는 환자에게는 경관유동식을 해드리고, 내 가족을 돌본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해야 하죠”

끝나지 않은 도전

송희숙님은 지칠 줄 모르고 도전한다. 운영하던 미용실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이후에도 자기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고 노력한 덕분에 시립도서관과 보건소에서 일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틈틈이 공부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땀다.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실직한 후에는 재도약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마침내





재취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녀의 과감한 도전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녀는 올해 3월에는 야간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사회복지를 전공하여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 말고도 그녀의 꿈은 또 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다보니 환자들의 재활을 위해 물리치료가 몹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언젠가는 물리치료학과에 편입학해서 물리치료사 자격도 취득할 계획이다.

그녀의 열정은 자신의 개인적인 성취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봉사활동에도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쏟는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다 같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거죠!”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와중에도 여성자율방범대, 사랑의 열매, 재난재해봉사단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 활동들로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송희숙님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녀는 재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간곡한 당부하면서, 재도약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 “자의든 타의든 직장생활을 중도에 그만둔 중년 여성들이 다시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이 물론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재도약취업지원프로그램

- ★ 재도약취업지원프로그램은 40세 이상의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재취업교육과 구직활동 지원을 통해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과정이다. 교육과정은 경력설계, 생애설계, 진로설정 등 맞춤형교육과 채용박람회참가, 모의면접, 이력서작성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01 길은 있다! 중장년 재취업 체험기

“더 많은 분들이 장년인턴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저처럼 다시 기회를 얻으시면 좋겠어요.”

임옥녀(53세, 포항 제일끼꼬어린이집 보조교사)

3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떠나 중년의 나이에 새로운 일터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거듭되는 실패로 구직활동에 지쳐갈 무렵 우연히 ‘경북동부경영자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알게 되었다. 장년인턴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임옥녀님은 하루하루가 기쁨과 보람의 나날이다. 그녀가 꼽는 자신의 재취업 성공비결은 세 가지이다. 끝까지 포기 하지 않고 노력한 것과 가족들의 응원, 그리고 장년인턴취업지원사업이라는 기회를 만난 것이다.

“포기할 뻔 했던 구직활동

현재 경북 포항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는 임옥녀님은 지난 2014년 여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경북동부경영자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오혜진 컨설턴트를 처음 만났다. 포스코와 그 계열사에서 전화상담원 등으로 30여 년 동안 일하다가 퇴사한 후 새로운 일터를 찾던 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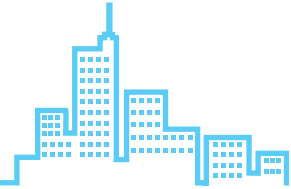
‘내가 옛날에 대기업 다녔는데, 내가 옛날에 팀장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버리고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구직활동을 시작했지만, 막상 다시 직장을 구하려니 만만치 않았다. 오랜 만에 써보는 이력서를 들고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것도 힘들었지만 나이

와 경력 때문에 반겨주는 곳이 없었다.

CCTV 모니터 요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간 회사에서는 대기업 출신이라고 대놓고 난색을 내비쳤다. 전에 다녔던 회사보다 다소 처우가 낮더라도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각오를 힘주어 말했지만, 못 미더워 하는 눈치였다.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대기업에 근무했던 경력이 채용면접에서 오히려 감점사유가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었다.

생산직 사원을 채용하는 어느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에는 함께 면접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는데 나이 많은 나를 뽑아줄 리가 없겠구나.’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불합격이었다. 대기업 출신이고 나이가 많으니까 힘든 일과 낮은 처우를 오래 감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번번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그만 포기해버릴까’하는 마음도 슬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2의 인생

그러던 중에 지난해부터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담해오던 오혜진 컨설턴트에 가서 장년인턴 채용에 신청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돌보는 일을 보조하는 일자리라기에 처음에는 약간 망설여졌다. “제가 30년 동안 해왔던 일이 어른들을 상대로 전화상담을 하는 일이었어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너무 생소해서 자신감이 없더군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아이들을 별로 예뻐하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되더군요.”

망설이던 그녀에게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어준 것은 가족의 응원이었다. 그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딸은 “우리 엄마는 충분히 할 수 있어”라며 격려해주었다. 남편도 적극적으로 응모해보라고 권했다. 가족의 응원에 힘을 얻은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그래, 다 내가



하기 나름이다. 능력이 되는 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무슨 일이든지 해보자!’

평소에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정돈 하는 성격인데다가 어느 정도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났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안내를 받아 인턴신청을 하고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얼마 후 어린이집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괜찮겠느냐?”고 물었을 때 “이보다 훨씬 더 먼 거



01 길은 있다! 중장년 재취업 체험기

리도 30년 동안 출퇴근했습니다!’고 대답했다. 이번에는 합격이었다. 2015년 4월부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녀가 주로 하는 일은 아이들의 생활상을 비디오로 촬영한 후 동영상을 편집하여 어린이집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는 일이다. 그밖에 미술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조리사들을 보조하는 업무도 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본격적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

“적극적인 의지와 자신감이 가장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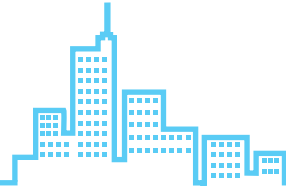
그녀는 어린이집의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이 올린 동영상을 보고 학부모들이 댓글을 달아줄 때 뿌듯한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

이 정말 즐겁습니다. 오죽하면 아이들을 별로 예뻐하지 않았던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게 되었을 정도니까요.”

어린이집 아이들은 그녀를 ‘동영상 선생님’으로 부르며 무척 따른다. 그녀도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너무 보고 싶어서 다음날 출근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한다. 누구나 그렇듯이 그녀도 역시 재취업을 통해서 비단 경제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와 자아실현의 성취감도 얻고 있는 셈이다.

재취업을 통해 하루하루가 즐겁고 보람 있다는 임옥녀님은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구직자들에게 ‘장년인턴취업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한다. 장년인턴취업지





원사업과 같은 정부의 지원정책 덕분에 어린이집에서 자신을 채용할 수 있었고 3개월 동안의 인턴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의지와 자신감이지만, 장년인턴취업지원사업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죠.”라며 그녀가 활짝 웃는다. /



✦ 장년인턴취업지원사업

장년인턴제는 중소기업에서 장년 구직자를 3개월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인턴기간 중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장년인턴제로 채용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6개월간 월 65만원의 정규직전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준다.

구인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직종분야도 도소매, 건설, 전기, 학원, 병원, 호텔, 제조업, 전기 등 다양한 업종이 신청가능하다.

인턴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직자는 만 50세 이상의 장년으로 소정의 자격을 갖춘 미취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01 길은 있다! 중장년 재취업 체험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김시환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에 만족한다면 삶의 의미는 그 순간 멈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지금 하고 있는 것, 다음에 이뤄야 할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간다.

흔히들 인생은 2모작이라고 하는 인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인생을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현역과 그 이후로 나누는 2모작은 어찌 보면 굉장히 우울한 말이다. '2모작'이라는 말 속에는 평소 꿈꾸던 평온한 노후보다 은퇴 후 남은 20~30여 년의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담겨져 있다.

나는 인생을 3모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젊음과 패기로 시작해 청년까지 현역 생활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농사였고, 젊음 대신 수십 년간 쌓은 경험과 노련함 그리고 청년기 못지않은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두 번째 농사다. 부족하지 않은 경제력 위에 평온함을 추구할 세 번째 농사는 80세 이후부터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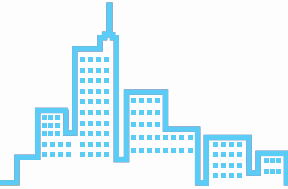
60세를 전후한 첫 번째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하는 일이다. 인생을 경제활동과 휴식이 혼재된 2모작이 아닌 분리된 3모작으로 생각한다면 은퇴 후 계획이 좀 더 뚜렷해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더 명확하게 결론을 내기가 쉬워진다.

스스로의 경험이나 장점은 물론 자신이 가장 잘 알겠지만 그것을 가장 잘 찾는 일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공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례 소개



나는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도움을 받아 은퇴 후 공사감리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준비했다.

그 결과 현재 감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과의 관계는 은퇴 후인 2010년 3월 KT우면동 연구소에서 실시한 사업설명회를 듣고 호감을 갖고 있던 중 KT인사부의 적극적인 권유를 받아 관계맺기를 시작했다.

사업설명회 후 회원으로 가입했고 서울 여의도와 강남을 오가며 1년 동안 담당컨설턴트와의 상담과 강의청강 등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지원받으며,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목표를 정했고, 지지치 않으면서 준비할 수 있었다.

아마 혼자서 무엇인가를 해보려 했다면 목표를 분명히 하지 못했거나 목표를 이루기 전에 지쳐서 포기했을 수도 있다. 만약 포기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물론 감리란 목표를 이뤘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었다.

프로젝트 단위 계약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 프로젝트가 끝나고 다른 프로젝트가 있을 때까지 쉬는 동안 할 일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은퇴 전후의 경험을 살려 시니어를 위한 은퇴 설계 강사로 강의를 시작했고 미스터리 쇼퍼 자격을 취득해 활동하고 있다. 시니어를 위한 교육활동 사업은 수요가 앞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 해볼 만한 일이기도 하다.

잠시 쉬는 동안에 만약을 위해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도 취득했다.

요즘은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취득에 도전하고 있다.

나는 활기찬 인생 2막, 풍족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이다. /



01 길은 있다! 중장년 재취업 체험기

조언대로 키높이 구두 신고, 호텔 보안직에 도전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양현영

대도시에서만 살다가 여유롭게 자연과 함께 노후를 보내고 싶어서 아내와 함께 이곳 제주에 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청소원으로 시작해, 미화감독, 은행 청원경찰 등의 일을 30여년 했습니다. 제주에서도 경비 또는 청원경찰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서울과 달리 영세업체 시설관리와 아파트 경비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은행의 청원경찰이나 서비스 계통의 경비는 나이가 걸려 지원조차 안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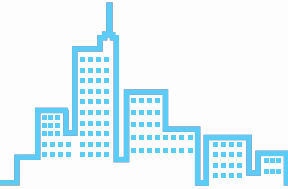
아무 연고도 없이 내려와 아는 사람 없이 취업하기가 참 힘들었고, 제주가 배타적이라 하지만, 낮까지 가리는 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일자리라도 얼른 잡아야 제주에 마음을 붙이고 살 텐데 하며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에서 들렸던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제주센터)에도 있다는 걸 알고 아내가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지리도 모르는 중년부부가 열심히 찾아간 제주센터에는 우리를 반겨주시며 편안하게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제주의 경제적인 상황과 일자리 실태를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대책 없이 일자리를 제주도에 와서 구하겠다는 생각이 허무맹랑한 생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받았던 급여와 대우와 직장의 규모를 기대한다면 이곳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급여가 6~70만원 차이 나며, 산업구조도 1차, 3차 산업에 집중돼 있어서 저희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일할 곳이 마땅치 않음을



사례 소개



알게 되었습니다.

제주의 상황을 듣고 다시 서울에 가야하나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고 용기를 갖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 없이 도전한다면 언젠가 적합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컨설턴트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우선은 해왔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받았던 교육, 자격증,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일들 모든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히 썼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 경력을 보시고 서비스업종에서 친절과 배려와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한 곳에 적합하겠다고 조언해주셨습니다. 마침 규모가 꽤 큰 호텔이 보안직원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력서 작성도 도와주셨습니다. 관련이 있고 도움이 될 만한 경력은 자세히 적었고, 키(신장)도 본다고 하여 키가 커 보이는 옷과 신발을 코디해 주셨습니다. 호텔의 보안직이기 때문에 손님들 안내 업무도 포함된다고 하여 표정과 말투도 코칭을 받았습니다. 좀 더 명확한 발음과 밝은 웃음으로 거울을 보면서 연습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면접에서도 합격을 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아직도 생활정보지를 찾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말, 행동 하나에도 우리를 배려해주셨기에 타지인 제주에서도 정을 붙이고 살 용기가 생겼습니다. 제주가 제2의 고향이 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저처럼 제주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제주센터에 감사드립니다. /



재취업의 디딤돌 ‘인맥 만들기’, 성실함이 왕도다!

경북동부경영자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이강섭

강원도 깊은 오지 마을에서 태어나 26살의 청년으로 입사한 POSCO는 저에게는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철을 만드는 과정의 일부분이지만 신기함과 동경의 대상에서 현실로 다가왔고 직원으로서 35년을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할 때 후배들이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라며 축하해 주고 환송해 주었지만 특별한 준비 없이 직업이 없어졌다는 것에 당황과 혼란이 겹쳐 이를 혼자서 극복해 내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좋은 회사에서 35년을 다녔는데 뭐라도 할 수 있도록 불러주겠지’ 하며 기다렸지만 재취업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연락도 해보고 기다려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매번 “지금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찾아주는 곳을 기다리기 보다는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할 즈음 다시 웃음을 찾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재도약취업지원프로그램의 3일의 효과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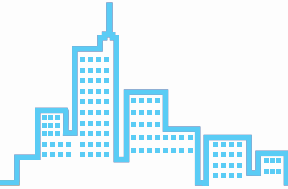
짧은 3일의 교육이었지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컨설턴트님들은 장년층 취업의 많은 부분이 인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며 인맥 만들기를 강조하였습니다.

20%의 적극성과 80%의 인맥이 제 2의 인생을 만듭니다.

함께 수료한 동료들도 서로서로 인맥이 되어 자신에게는 맞지 않지만 동료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있으면 소개해 주어 취업이 된 케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정보



사례 소개



들도 서로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동료들도 중요한 인맥입니다. 인맥이 성실성의 결과가 되어 새로운 도약의 길이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바뀌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취업을 한 경로는 이렇습니다.

재도약취업지원프로그램 전부터 봉사하던 도서관에서 어느 날, 사서 한 분이 직장이 어디기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느냐고 묻기에 농담처럼 “백수입니다.” 하며 웃었습니다. 도서관의 봉사자 대다수가 여성인데 청일점 봉사자가 눈에 띄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증도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던 중 총괄 담당자가 차 한 잔 하자는 요청에 차를 대접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저런 안부와 신변얘기 중 구직 중임을 알고 지금의 직장인 포항시청 관제센터에 직원모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이력서를 내 볼 것을 권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반신반의 하는 마음으로 이력서를 낸지 일주일 후 센터의 담당자가 면담하자는 요청이 있어 가게 되었습니다. 제안은 ‘우선 인턴으로 입사한 후 자리가 나면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스친 인연이 이런 일을 만들어 주다니 참으로 감사한 인연이었습니다. 때마침 실업급여 종료일인 10월 2일자로 내 인생의 두 번째 직장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힘차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재도약취업지원프로그램에서 강조하던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실성과 적극성으로 다가간 봉사활동과 스치듯 다가온 인맥이 제 2의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저의 성실성을 평가해 준 그 인맥이 저를 살리는 인맥이 되었고, 바라만 보던 취업을 도전하는 취업으로 바꾼 결과입니다. /



01 길은 있다! 중장년 재취업 체험기

긍정하고, 준비하면 기회가 오리니

노사발전재단 인천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김기태

사람은 한번 세상에 태어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생활하게 되며, 과연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생활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일 것입니다.

나 역시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약 12년을 일만 생각하며 생활하였고, 퇴직 후 자영업을 하면서도 앞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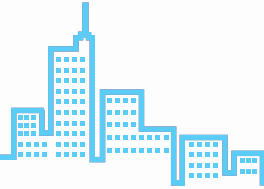
그러던 중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2015년 3월 10년 동안 운영한 사업을 폐업 한 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날이 캄캄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있기에 정신을 가다듬고 닦치는 대로 어떤 일든 해야겠다는 맘으로 재취업을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의지와는 달리 재취업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온라인에 이력서를 올려놓거나 이력서를 지원해도 나이와 경력 부족으로 오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온라인에서 중장년 재취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사발전재단 인천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인천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무작정 인천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상담을 통해서 체기가 내려갈 때처럼 가슴이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에게도 터놓을 수 없었던 고충들을 털어놓으면서 비로소 자신에 대한 긍정의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문컨설턴트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나를 알고, 내가 취업하려 하는 사회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네 번의 대



“나는 준비하고 있다”



면상담과, 이메일,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의 구직활동을 소개받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당장 아무 곳이나 재취업을 하기보다는 인생 2막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무엇을 하기에 앞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나에 대한 탐색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MBTI, STRONG, 가치관 검사를 통해 나의 적성과 흥미, 가치에 대해 탐색하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 분석하고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방향설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전 해보지 못한 심리검사도 해보고,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나의 능력과 상황에 대한 장단점들을 분석하면서 나에 대한 가능성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전공과 예전에 취득한 자격증, 그리고 흥미와 재능들을 고려해서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하고 컨설턴트님이 주신 정보를 통해서 한국폴리텍대학의 MCT(머시닝센터) 가공실무과정 교육을 받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직활동 기간을 재도약을 위한 하프타임으로 생각하고 있고 3개월 코스로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도 컨설턴트님 조언을 통해 술선수 범하여 주도적으로 리더 역할을 맡고 있고 교육시간 외에도 남아서 이해될 때까지 공부하고 교수님, 교육생들과도 좋은 인연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기계공학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그동안 다른 업무를 해왔지만 어릴 적 꿈과 나의 재능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이 과정이 설레고 즐겁습니다.

누구든 준비되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기회는 오리라 확신하며, 하루하루를 알차고 희망차게 지내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값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자! 아자! 파이팅! /





01 길은 있다! 중장년 재취업 체험기

내가 배운 것, 취업준비 중인 중장년 동료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송윤영

인생에 있어서 실업이라는 고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큰 물결에 아직 들어서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같다. 그러한 실업의 고통을 2번이나 겪으면서 한없이 자신의 살아 온 과정을 되돌아보며 지금까지 살아 온 것이 나의 결정이지만 정말 잘못 살아왔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컨설턴트를 믿고 또 믿어라〉

짧은 1년 기간 중에 두 번에 걸친 실업에서 내가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전북센터)를 찾은 것은 봄이 아직 시작이 되기 전인 3월 찬바람이 옷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3월초였다. ‘내 경력이 얼마나 좋은데 일자리 하나 없겠어?’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거친 세상을 겁 없이 뛰어 나왔다. 처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보내고 마감일을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정말 모래성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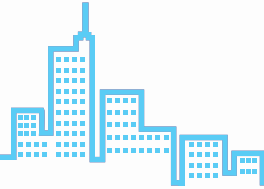
이력서, 경력사항 및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서 구직을 하기 위해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등록을 진행하던 중 전북센터를 찾아가게 되었다. 이곳은 중장년들의 일자리를 앞선 해 줄 뿐만 아니라 구직을 위한 서류작성부터 모의면접까지 여러 가지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이곳을 찾은 것은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과 같았다.

이력서는 일정한 형식으로 작성하면 되지만 경력사항과 자기소개서는 전문컨설턴트의 지도를 받아 작성을 하는 것이 구직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우선 지도하는 컨설





“나는 준비하고 있다”



턴트를 믿고 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컨설턴트가 정확히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찾으려는 일자리를 구체화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경력사항을 정리 할 때 지도받은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어느 업체에 사용할 경력 자료인가?

나의 경력과 업체에서 찾고자 하는 방향의 경력을 일치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장점을 보완하는 역할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2. 인사 담당자의 시각에 맞게 경력 자료를 작성해라.

인사 담당자가 보아 가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장점을 수치로 표현을 해라

참여 Project에서 어떤 일을 하였건 중요한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회사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되었는지를 수치로 표현해라.

4. 여러 경력을 그룹화 하여 부각시켜라

5.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두괄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거듭 그 동안 지도해 주신 소장님과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며 이를 일구어 내고 계시는 노사발전재단의 발전을 빌며, 많은 중장년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01 길은 있다! 중장년 재취업 체험기

아직도 배우고 있다!

노사발전재단 부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이미순**

나는 현재 노사발전재단 부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부산센터)에서 사회공헌일자리 봉사자로 근무 중이다. 해운대 벅스코에서 열렸던 일자리박람회를 통하여 부산센터에 연결이 되었고 재취업상담을 위해 갔다가 ‘사회공헌일자리’를 제안 받아 어리버리 이제 한 달이 좀 넘었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사회공헌일자리’를 이곳에서 알게 된 것이다.

‘구직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했던 나에게 부산센터가 거꾸로 연락을 주고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시켜주고 사회공헌일자리를 통해 현실감과 적응능력을 키워주었다.

24시간 매점에서 파는 이력서만 보다가 센터에서 배웠던 파워이력서의 그야말로 ‘파워풀’한 설득력, 인터넷 채용정보 활용법 등 하나하나 강의를 통하여 배워가면서 취업정보와 스킬에 무지했던 나의 눈과 머리에 비눗방울이 터지듯 새로운 정보들이 팡팡 터지는 것이 신기하고 즐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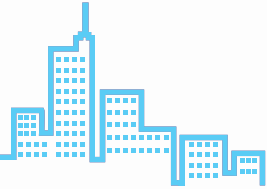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던 남편이 명예퇴직과 함께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후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하여 직장을 얻어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나도 무슨 일이든 하려 했지만, 50대 후반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작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오랜 일본생활을 통해 얻은 일본어 관련 일이었지만 찾기도 힘들었다. 프리랜서로 회의통역이나 번역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





“나는 준비하고 있다”



일을 유창하게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사업실패로 인한 귀촌생활의 재기하기 힘들었던 좌절감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탓인지 자신감도 없고 오래전에 현장을 떠나 경력단절의 시간도 길었던 것도 이유일 것이다.

막연하게 취업의 문을 두드렸던 취업박람회를 통하여 부산센터에 연결이 되어 강의를 들으라는 문자를 처음 받았을 때에도 ‘어떻게 내 연락처를 알았지?’ 하는 의아심으로 조심조심 끌려들어 상담을 했다. 그렇게 부산센터에서 이끄는 ‘재도약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도 했다. 식사도 걸러 가며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주셨던 윤지연, 임유진 컨설턴트님...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20명의 동기들과 점심을 먹고 양치질을 하려고 화장실에 들었을 때에 가지런히 포개져 버려져있던 컵라면 포장지 두 개. 공공기관에서 느껴왔던 딱딱한 부담은 없어지고 ‘아! 이 분들이 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느끼며 고마웠고 감동을 받았다.

이 후의 센터에서의 사회공헌 지원일은 조그만 힘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센터의 모든 분들이 물 마실 시간도 없이 일에 매여, 안과 밖으로 뛰어다니며 나와 같은 구직자들을 위해 바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며 배우고 있다면 이 나이에 너무 늦은 걸까?

사회공헌일자리봉사를 제안해 주신 윤지연 선생님께 감사하고 PC가 서툰 나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기를 마다하지 않는 박소라 선생님! 감사해요^^ /





02

특집
금융인력경력개발사업부





인터뷰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금융인력경력개발사업부 / 최성희 / 46





02 특집!!

현 · 장 · 에 · 서 · 만 · 난 · 사 · 람

구직자별 맞춤 컨설팅을 향한 작지만 큰 첫걸음

최성희 책임 컨설턴트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금융인력경력개발사업부

‘전문직’. 듣기만 해도 뭔가 있어 보이는 단어다. 실제로 전문직은 특수한 능력을 인정받아 연봉 등의 대우에서 여타 사무직보다 많은 걸 누리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자의든 타의든 퇴직을 하고 재취업 시장에 나오면 상황이 좀 달라진다. 예전에 일했던 바로 그 직종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쓰기 어려운, 혹은 쓸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것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금융’이다. 최성희 책임 컨설턴트를 만나 ‘금융인’들의 특별한 사정을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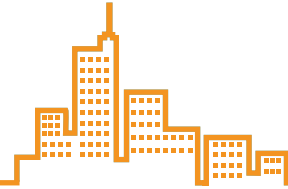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은행원은 은행잎만 먹어라?

노사발전재단이 처음 문을 연 것은 2006년이었다. 노사 파트너십 증진, 노사주도 사업 실행 활성화,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 기여를 목표로 다양한 노사관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각종 FTA와 쏟아져 나올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센터는 설립 목적에 맞게 중장년 취업 희망자들의 든든한 보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런데 올해 초, 하고 많은 업종 중에 ‘금융’만 따로 떼어내어 특별사업단을 꾸렸다. 이름하여 ‘금융인력경





력개발사업부’다.

“지난 10여 년간 센터의 활동을 모니터링 해본 결과, 전문직에 종사했던 분들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것이 금융 분야였어요. 지난 2014년에 대대적인 금융인력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체크를 해보니까 다른 곳으로 간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른 업종으로 갈 수 없는 경우도 많았고, ‘금융’에만 특화된 능력이라 다른 부문과 호환이 쉽지 않고 전직도 안 되니까 아예 직무 자체를 바꾸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존 센터 업무는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목표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금융인력경력개발사업부는 퇴직자는 물론 퇴직 예정자, 재직자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직과 전직을 고려해서 재직을 하고 있을 때 미리 준비를 시키자는 취지다.

“위낙 금융이 심각한 상황이라 먼저 시작을 했지만, 어려운 산업분야가 생길 때마다 경력개발을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말하자면 금융인력경력개발사업부는 업종특화 사업의 첫 시도라 할 수 있죠.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인 셈입니다.”

금융권 퇴직자, 예정자를 위한 단계별 맞춤 서비스 제공



금융인력경력개발사업부에서는 금융권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및 창업지원을 비롯하여 경력개발 및 관리, 생애설계 지원,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개인은 물론 단체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일대일 맞춤 상담과 교육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룹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특히 경력개발에 필요한 전문가들과 함께 1박 2일 동안 집중교육을 하기도 하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일단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한두 가지씩 찾아나갈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전직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죠.”

금융인력경력개발사업부에서 제공하는 단계별 맞춤 서비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02 특집!!

STEP 1 전직 준비 프로그램 2일 과정

진단을 통한 자기탐색 및 구직 시장의 이해, 금융권 퇴직자들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진로 목표 및 구직 전략을 구성한다.

STEP 2 개인별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전담 컨설턴트가 일대일 개별 컨설팅을 통해 1단계 전직 준비 프로그램에서 구상한 진로 목표를 현실화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STEP 3 직무심화 단기 과정

1, 2단계를 거쳐 설정한 진로 목표에 따라 체계적인 구직활동을 본격화하는 단계이다.

재취업 과정: 파워이력서 작성, 면접 리허설 및 코칭 등

강사 과정: 금융 전문, 산업체 강사 등 목표 분야의 구직 전략 및 기초 역량 강화 등

사회적기업 과정: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이해 및 사례 분석 등

창업 과정: 사업 아이템 구상 및 계획서 작성, 사례 분석 등

귀농귀촌 과정: 귀농 귀촌 이해, 지원제도 및 사례 분석 등

STEP 4 직무심화 역량 강화

3단계 직무심화 단기 과정 이수 후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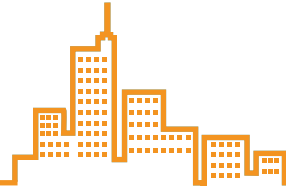
재취업 과정: 취업 알선, 기업 방문 등

강사, 사회적기업, 창업·귀농 과정

직업훈련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심화교육, 현장실습, 개별 코칭 등 지원

사후 관리

취업 알선, 업무 적응 결과 확인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대상은 만 40세 이상의 금융권 퇴직(예정) 자이다.

서울서부센터에 설치된 금융인력경력개발사업부를 본부 삼아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에 금융인력 전담 컨설턴트가 배치되어 있다.

“여기서 ‘금융권’이라는 뜻은 은행을 비롯해서 금융투자, 손해보험, 여신금융 등을 총 망라하는 개념입니다. 올해 초부터 사업부 세팅을 시작했는데, 거의 8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9월부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1,000명 정도의 그룹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 200명 정도는 STEP3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아버지 모습 보면서 구직자들의 심정 이해

최성희 책임 컨설턴트는 노사발전재단에 입사하기 전 일반 기업체에서 진로 교육을 담당하다가 7년 전 합류를 했다. 어떻게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업무를 맡고 있는 셈이다. 물론 경력이 길다고 해서 구직자들의 마음을 모두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사실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남자에게 직장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던 편이에요. 제가 노사발전재단에 입사하기 전인데, 아버지가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생전 술을 안 드시던 분이 술을 드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본래 프라이드가 정말 강한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친구도 안 만나고 그러셨던 것 같





02 특집!!

아요. 입사 면접 볼 때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그 덕분에 면접 보시는 분들 걱정은 조금 덜어드린 것 같아요. 당시 제 나이가 좀 어려서 ‘잘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을지도 모르는데, 아버지의 모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것이 나름 좋은 경험이 되었던 셈이죠.”

아버지를 대하듯 하는 따뜻한 심성 덕분일까? 최성희 컨설턴트에게는 남다른 기억이 하나 있다. 아직 ‘금융’ 분야로 특화되기 이전의 일이지만, 외환은행 출신의 퇴직한 분을 여행사가 운영하는 면세점의 관리자로 재취업을 시킨 것이었다.

“나이가 차서 정년퇴직을 한 분이었는데, 은행에서 근무할 때 중국 쪽 외환업무를 주로 맡았었죠. 실제로 중국에 가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 그 덕분에 퇴직 후 조금 쉬다가 우리가 추천한 한국 제조회사의 중국 법인장으로 재취업이 되었어요. 비록 은행 업무이긴 했지만 중국 쪽 경험이 많다는 걸 높이 산 거죠. 중국 쪽에서 납품을 받다가 아예 직접 공장을 차리자, 하고 만든 현지 법인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아예 철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한국에서 근무하도록 자리를 주겠다고 했지만 이분은 ‘내 역할이 없어졌으니 그만두겠습니다’ 하고는 사표를 내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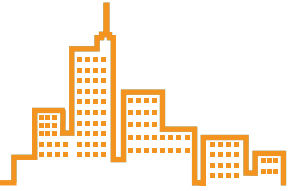
서울서부센터에서 추천해준 회사라 조금 마음의 부담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는 오래지 않아 여행사 소속의 면세점 관리자로 자리를 옮겼다. 대부분의 면세점들이 ‘중국인’을 주 고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화교 출신 직원들을 많이 쓰는데, 그의 중국 회사 관리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었다. 게다가 ‘금융’ 출신답게 직원들을 많이 관리해왔고 ‘서비스 마인드’가 남다른 것도 장점이었다.

“사실 그 면세점의 인사 담당자도 우리 센터와 인연이 깊은 분이었어요. 대기업 임원 출신 퇴직자였는데, 우리 센터의 구직자로 등록을 해두고 있었죠. 대기업 출신이라 동종 업종에는 3년간 취업이 금지된 상태였어요. 아예 전직을 하지 않는 한 3년간은 취업이 어렵다고 본 이 분은 평소 좋아하던 여행이나 실컷 다니자 하면서 세계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여행길에서 우연히 여행사 사장님하고 딱 마음이 맞았던 거죠.”

여행 취미 덕분에 뜻밖에 재취업이 되긴 했지만, 사실 본인에게는 아쉬움이 큰 취업이었다. 대기업 임원으로 받던 연봉은 역대였는데, 여행사에서 제시한 연봉은 4분의 1도 안 되는 단돈 2,50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고민을 많이 하셨죠. 연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사실 여행사 입장에서는 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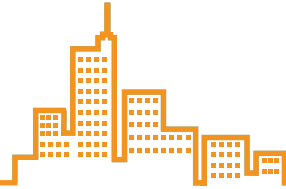
02 특집!!

나 남는 장사를 한 셈이었습니다. 여행사 인사 담당의 이직이 너무 많아서 오래 있을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지금 3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제대로 된 분을 구한 거죠. 게다가 연봉도 그만큼이었으니... 그런데 이분이 여행사에 취업을 하고 나니까 우리 서울서부센터에도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중년 퇴직자를 뽑아도 좋구나' 하는 걸 여행사에서 알게 된 덕분에 은행 퇴직자 출신이 네 분이나 그 여행사에 추가로 취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은 '중년 퇴직자'라고 하니까 혹시 '권위적이고, 보수적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던 거죠. 그

게 말끔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분 이외에도 공항에서 호텔까지 운영하는 셔틀버스 기사 세 분도 본래 우리 고객이었죠.”

최근에는 기업은행에서 나라사랑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금융권 경력자 중에서 카드사업소 소장을 맡아줄 사람을 구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현재 진행 중이다. 금융인력경력개발사업은 그렇게 착착 궤도에 진입해가고 있다.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묻고 또 물어라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현재 순항 중이다. 맨 처음 5개로 시작했던 센터가 전국 30여개로 늘었고, 컨설턴트만 200여 명이다. 규모가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다,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규모가 커진 것뿐만 아니라 사업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요. 단순히 재취업 정보 제공이나 알선만이 아니라 정서 지원과 일대일 심리상담도 진행하고 구직자 동아리도 만들어주고 있어요. 재직자를 대상으로 생애설계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있죠. 생각해 보니까 매년 사업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네요.”

센터의 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컨설턴트의 부담도 그에 비례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처음 센터를 오픈했을 당시 한 사람의 컨설턴트가 관리하던 고객이 1년에 2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자그마치 1,000여명으로 늘었다. 일이 힘든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자칫 고객 서비스가 소홀해지거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하지만 최성희 컨설턴트는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모든 컨설턴트들이 고객 관리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환하게 웃는

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구직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며 말을 이었다.

“저는 구직자들이 ‘질문’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장년층 분들이라 그런지, 우리나라 정서 때문인지 질문을 잘 안 해요. 게다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나는 누구보다 경험이 많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질문을 아끼면 센터에서 주는 자료만 받아가거나 잘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감’으로만 이것저것 해보게 되는 거죠. 제발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친구나 우리 센터, 주변 지인들에게 묻고 또 물어서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를 많이 확보하고 빨리 재취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





03

중장년 인재와
함께 크는 기업





우수 성공사례 인터뷰

(주) 원컨덕터 대표이사 / **지상현** 56

사례 소개

서울환경운동연합 / **김효주** / 62

평안정공 (주) / **이종완** / 64

(주)캐슬렉스 제주 / **서종식** / 66



03 중장년 인재와 함께 크는 기업

현 · 장 · 에 · 서 · 만 · 난 · 사 · 람

우리는 꿈의 크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상현 주식회사 원컨덕터 대표이사

여기저기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2015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은 썩 좋지 않다. 세계 경제의 흐름도 전망이 별로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주변을 놀라게 하는 기업이 있다. ‘중전기 부품의 절대 강자’를 자부하는 원컨덕터다. 중장년 경력자를 2명이나 채용하고 더욱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있는 원컨덕터의 지상현 대표를 만나보았다.

진짜 ‘기업’으로 가는 힘은 바로 ‘사람’과 ‘조직’

중국 동부지역에는 모소 대나무(Moso Bamboo)라는 특이한 대나무가 있다. 일명 모죽이라고도 불리는 이 대나무는 심어두고 4년이 지나도 좀처럼 자라지 않는다. 그런데 5년째부터는 놀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나타낸다. 하루에 무려 30센티미터씩 자라는데, 6주 정도가 지나면 15미터까지 자란다. 그렇게 자랄 수 있는 힘은 바로 4년 동안 땅속에서 끊임없이 뿌리를 든든하게 뻗어두었던 덕이다.

원컨덕터 지상현 대표의 얘기를 듣다가 문득 떠오른 얘기가 바로 모소 대나무였다.

Y2K로 떠들썩했던 2000년이 막 저물어

가던 12월 20일, 지상현 대표는 지인의 사무실에 임시 보금자리를 만들고, 기계를 빌려서 독립을 했다. 말 그대로 ‘구멍가게’ 수준이었다.

“본래 토목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 취업을 하고 회사를 옮기다 보니까 점점 ‘전기’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퇴직을 한 게 ‘한성전기’ 공장장이었으니까, 전공과는 상관없이 이미 상당한 전기 전문가가 되어 있었던 셈이죠.”

그렇게 지인의 사무실과 공장을 빌려서 시작한 사업이 16년 만에 500여 평의 자체 사옥을 가지고 2013년 매출 65억 원을 달성한데 이어 2014년에는 87







03 중장년 인재와 함께 크는 기업

억 원을 넘는 등 매년 발군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곧 시화 MTV 1,500여 평의 신축공장으로 확장 이전할 계획이니, 팔목상대라는 말이 바로 원컨덕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지상현 대표는 아직도 목이 마르다. ‘매출’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다.

“지난 16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걸 꼽으라면 무조건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회사 규모는 100억 원 대로 올라서고 있는데, 회사 조직은 아직 그걸 쫓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경력자를 두 분이나 모신 이유는 바로 우리 회사의 조직문화를 매출 규모에 걸맞게 바꾸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컨덕터가 진짜 ‘기업’이 되려면 그에 맞는 조직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던 인재 발굴

크든 작든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인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자신의 회사에 딱 맞는 좋은 인재를 얻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이 때문에 큰 기업에서는 아예 신입사원 때부터 기업에 딱 맞는 인재를 만들기 위해 적지 않은 투자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말처럼 그게 쉽지 않다.

“지금까지 저는 어떤 기업인보다 훌륭한 인재 회사를 만들고 이끌어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목이 마릅니다. 좀 더 넓고 크게 나아가려면 진짜 가족처럼 함께 일할 동반자가 필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동안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컨설팅을 받아보기도 했고, 지인에게 사람을 소개받기도 해봤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 퇴사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문인력을 채용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오랫동안 같이 일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지상현 대표는 ‘인재 발굴’을 통한 ‘체계적인 조직 만들기’를 포기할 수 없었다. 단순한 매출 신장이 아니라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 매출이 수십억 원에 올라설 때까지 경리 아가씨도 두지 않고 저 혼자 거의 다 했어요. 그렇게 인원이 몇 명 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즉답 즉행’이 되었어요. 일도 그만큼 빨리 처리가 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도 없고, 제 입만 바라보아서도 안 되는 거죠.”

‘즉답 즉행’의 관성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다. 기존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도 해보고, 원컨덕터와 비슷한 업종에서 성





공한 기업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심지어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올라선 업체의 시스템과 매뉴얼을 통째로 적용해보기도 했지만 그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또 한편으로는 근무기간이 오래된 직원들의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 젊은 직원을 채용하기도 해봤지만, '우리보다는 나'를 앞세우는 개인주의 문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가뭇의 단비처럼 만난 증장년일자리희망센터

거듭된 실패에 지친 지상현 대표는 '인재' 등용을 포기하는 대신 설비를 현대화하고 경험이 풍부한 장년층에게 기술 분야를 맡기는 한편 지식은 전문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그러자 기능과 지식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을 구하는 것은 역시 힘들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안산상공회의소 증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가뭇에 단비를 만난 것 같은 기쁜 소식이었다.

“어느 날 회사 팩스로 증장년일자리희망센터 안내문이 왔는데, 평소 '인재 발굴'에 목이 말라서인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구인 등록을 하고 인재를 추천받았죠.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취업박





03 중장년 인재와 함께 크는 기업

박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래 지상현 대표는 취업박람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중장년일자 리희망센터의 임순영 컨설턴트와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누면서 어느 정도 믿음을 갖게 된 상태라 센터의 적극적인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 박람회에서 장년인턴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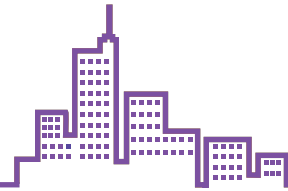
“박람회를 거치면서 원컨덕터의 인재상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컨설턴트와 협의하여 인재를 추천받았습니다. 컨설턴트의 설명에 따르면 재도약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참여자들과도 원활하게 소통을 한 인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동안의 실패 경험들 때문에 쉽게 확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본 이후에도 컨설턴트에게 몇 번이나 확인 과정을 거쳤죠. 그때 컨설턴트가 최종 판단이 어려우면 장년인턴취업지원사업을 활용해보라고 권하더군요. 인턴 기간 동안 추천자의 능력을 본 다음 최종 결정을 하면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채용을 결정했습니다. 그것도 두 명이나.”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제가 커버하겠습니다!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은 대기업 임원 출신이고, 또 한 사람 역시 중견기업의 임원 출신이다. 스펙만 보면 당장 원컨덕터에서 할 일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지상현 대표의 생각은 좀 다르다. 앞서 소개한 모소 대





나무처럼, 지금부터 뿌리를 튼튼히 뺏어두어야 어느 순간 급성장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장년인턴취업지원사업으로 두 분을 채용한 지 3개월에 접어들었네요. 어제 두 분 모시고 한잔했습니다. 정식으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한 셈이죠.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장년인턴사업을 점검했는데, 우리 회사처럼 중간관리자를 2명씩 한꺼번에 채용하는 건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얘기겠죠. 실제로 3개월 동안 함께 일을 해보니까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성실함과 꾸준함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 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점은 더욱 살리고, 단점은 제가 커버하면서 함께 원컨택터의 미래를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

지상현 대표의 희망은 두 명의 장년 재취업자가 기존 근로자들과 조화를 이루고 “웃으면서 출근하고 웃으면서 퇴근하는 회사, 출근할 시간이 기다려지는 회사”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임원으로서, 주인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회사로 발돋움을 하려면 이들과 같은 중장년층이 뿌리가

되고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지상현 대표와 같은 이상을 가지고 더 나은 기업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꿈의 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회사

“우리 직원들이 지금 5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가운데 일부는 지금 당장 필요한 인력은 아니에요. 조만간 옮겨가게 될 1,500여 평 규모의 신사옥도 지금 우리 매출 규모로 보면 다소 큰 편이죠. 하지만 저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사람을 뽑고, 사옥을 준비한 것입니다.”

지상현 대표는 자신의 이런 포부를 올해 신년사에 고스란히 담았다. 그것은 바로 ‘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원컨택터 가족 여러분. 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꿈의 크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꿈의 크기가 미래의 크기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뛰어봅시다. 더 큰 꿈을 향해 도전해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원컨택터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won can do it! /

-대표이사 신년사 중에서



협동조합에 인재를 채워주는 파트너, 장년인턴취업지원사업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효주

저희 기관은 시민사회단체인 환경운동연합에 귀속되어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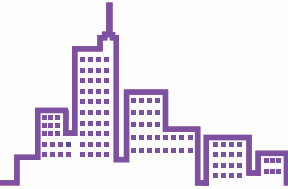
2015년 4월 2일 노사발전재단을 만나게 된 것은 저희 환경센터를 관리해 줄 총무 담당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총장님께서 “우리도 중장년일자리센터를 알아보는 게 어떨까?” 의견을 주셔서, 장년인턴취업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여러 기관 사이트를 알아보는 가운데 노사발전재단 사이트가 제일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첫 인연을 맺게 된 분이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장년인턴 담당 심주현 대리입니다.

장년인턴취업지원사업이 낯설고, 어떤 제도인지 정확히 몰랐던 인사담당자로서, 궁금한 것도 많았고, 질문도 수 없이 반복해서 물어 보고, 확인하는 전화를 여러 번 해도 정말 묵묵히, 오히려 미안할 정도로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습니다. 취업을 위한 서류절차 등이 청년들에게는 쉽지만, 장년들에게는 쉽지 않은 절차인데, 중간역할을 해주신 노사발전재단에서 잘 도와주셨습니다. 서류절차 등을 여러 번 안내해 주시고, 서류작성 방법, 제출할 기간 등을 늦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르는 건 이메일로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빠른 시일에 인턴채용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서류심사를 통해 채용 가능한 사업장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소개



그 이후 구직자들의 이력서를 이메일로 여러 차례 받아, 적합한 분들의 서류를 검토한 후 드디어 세 분을 4월 10일 면접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면접하고는 사뭇 다른 면접이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일의 소중함을 아시고, 일에 대한 갈망 때문인지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셨고, 일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는 훈훈한 면접이었습니다. 세 분 중 한분을 뽑아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결정하기 쉽지 않은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좀 더 많은 일자리를 통해 장년층들이 일할 수 있는 자신감과 행복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월 20일 그래도 제일 적합하고, 근거리 거주하시는, 안병대 총무님을 인턴으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하시는 태도, 업무처리 등 3개월의 시간을 통해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며 장기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는 지, 일이 힘들지는 않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장년인턴제도는 조금하게 판단하는 실수도 줄이게 되고,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다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갖고 있어서, 장년인력 채용에 대해 고민하고 망설이는 사업장에게는 새로운 혁신이라고 생각하며, 저희 사업장에게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현재 안병대 총무님은 7월 20일 정규직 전환으로 저희와 함께 가족처럼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어진 업무 외에 더 많은 일들을 찾아서 해주시고 술선수범 하는 모습에 처음 장년인턴제도에 선입견을 갖고 반대했던 직원들도 반감을 가졌던 마음을 미안해하며, 더 친절하게 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노사 간에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노사발전재단의 발전을 기원하며, 항상 친절하게 알려주신 장년인턴 담당 심주현 대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맞춤형 인재를 펼쳐 보여주는 희망센터 하이팅!

평안정공 (주)
이종완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전북센터)를 알게 된 건 장년인턴취업 지원제도를 이용하게 되면서입니다. 인력이 갑작스럽게 결원이 생겨서 급히 채용을 해야 하는데 마땅한 인재가 없어 직원들끼리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년인턴 사업담당자와 연락을 취한 후 업무협약을 맺는 날 컨설턴트가 저희 회사에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장년인턴취업지원사업에 대해 꼼꼼히 설명을 해주면서 준수사항에 대해 강조하며 추후 채용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의 채용계획이 3명 정도 더 필요하며 근무 중인 직원이 이 업무를 나누어 하고 있어서 야근이 많은 상황”이라고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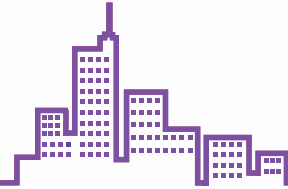
담당 컨설턴트는 회사를 한번 둘러보고 싶다고 하며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저희 회사의 공정과정과 주요 업무에 대해 대략 설명을 하고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며칠 뒤 담당 컨설턴트에게 문의전화가 왔는데 채용설명회를 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업무에 맞는 중장년 인력이 15명 정도 있고 채용정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면접을 실시해서 빠른 인재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사담당자인 저와 공정파트 담당 부장과 함께 채용설명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근산 한국GM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들이 대부분이었고 같은 업종이라 찾아오신



사례 소개



분들이 높은 관심들을 보이셨습니다. 채용정보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고, 이어서 현장 면접을 진행하는데 많은 분들이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대부분 복리후생과 교통편에 대한 질문이었고 군산에서 김제까지 30분 거리에 기숙사가 있다는 점에 대해 큰 이점으로 평가해주셨습니다.

채용설명회 결과 3명의 직원이 모두 채용이 되었습니다.

2명은 11월 9일부터 나머지 한 명은 11월 24일부터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을 고르는데 항상 주저하게 되고, 언제든 사람을 모시는데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부담이 지워지곤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채용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저희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맞게 사람을 고를 수 있도록 풍성한 자료와 서비스를 챙겨 주셨습니다.

함께 채용설명회에 참석했던 담당자는 서류와 면접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켜서 너무 편하고 좋았으며 다음 기회에도 제안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경력직원을 뽑게 되어 회사 입장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가 위치한 김제산업공단에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혜택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기업과 성장하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응원하겠습니다. /



인턴 소개 후 회사 적응까지 챙겨주는 희망센터에 감사를!

(주) 캐슬렉스 제주
서종식

(주)캐슬렉스 제주는 호텔, 골프장 등을 운영하는 고품격 레저업체입니다. 이런 사업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서비스 역량을 갖춘 사람을 구하는 게 꼭 필요한데, 이게 때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저희가 장년인턴취업지원사업을 소개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장년인턴취업지원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최진숙 컨설턴트를 통하여 상세한 제도의 취지와 장점, 실행계획을 안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장년인턴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였던 탓에 효용성을 반신반의 하였으나, 당사가 요청한 인력을 파악하고 나서, 우리의 수요에 적정한 분들을 실제로 구인하여 면접을 진행하는 추진력에 새삼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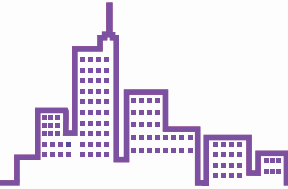
그리고 여러 절차를 진행한 끝에 면접 인원 중 4명이 2015년 6월에 채용되었고 지금은 아쉽게도 1명이 퇴사를 하여 3명이 성실하게 근무 중에 있습니다.

센터의 서비스는 채용 절차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제주센터)의 지속적인 인턴직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담당직원과의 대화가 지속되었고, 이를 통해 사소한 문제점들을 풀어나가서 인턴 인력들이 당사의 시스템에 완전히 적응을 해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도 장년 인턴 직원들에 대한 초기의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장년인턴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신뢰를 더하게 되어 9월에 3명



사례 소개



모두를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호원석 지배인의 사례는 함께 인턴으로 입사한 분들은 물론, 우리 사업체의 기존 직원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호 지배인은 입사 당시 프런트에 배치된 직원이었으나, 적극적인 업무수행과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부각시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확인한 바, 영업 경력도 적지 않았고 중국어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지금은 당사 영업팀의 판촉지배인으로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당사의 중국영업 담당을 맡아 일하게 될 것으로 협의 중입니다. 당연히 연봉인상도 있게 될 것입니다. 11월 4~7일 중국 상해 출장을 시작으로 11월 11~15일 중국 곤명으로 출장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제주도내는 물론 육지부의 중국 관련 여행사 및 단체 마케팅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 지켜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호원석 지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인센티브 지급 및 실적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연봉 인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인력사정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캐슬렉스 제주는 모든 부서에 인력 채용이 완료되어 동종 골프장으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있는 바 이는 장년인턴취업지원 사업에 힘입은 바가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장년층을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있었기에 저희 캐슬렉스도 장년층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노사발전재단과의 협력 속에 지속적인 장년인턴채용을 요청하고, 우수한 사원을 지원받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 글을 빌어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강수영 소장님과 최진숙 컨설턴트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





04

희망 코디네이터,
중장년 커리어 컨설턴트





인터뷰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배정미** / 70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노희승** / 76

취업지원 모범사례, “내가 컨설턴트다.”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박혜연** / 82

노사발전재단 인천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한명진** / 84

노사발전재단 경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마계희** / 86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최진숙** / 88

노사발전재단 강원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김현주** / 90

경북동부경영자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김성수** / 92

대한은퇴자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이인순** / 94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최수진** / 96



04 희망 코디네이터, 중장년 커리어 컨설턴트

현 · 장 · 에 · 서 · 만 · 난 · 사 · 람

당장의 취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커리어 맵을 작성하고 움직여라

배정미 컨설턴트·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예전에는 20년쯤 공부하고 30년쯤 직장 생활하다 은퇴해서 10년이나 20년쯤 노후를 즐기면 되었다. 하지만 바야흐로 100세 시대다. 50세쯤 넘어서 은퇴를 하면, 남은 인생이 50년이다. 마음은 여전히 현빈이지만, 몸은 이미 현철이다. 따라서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과 똑같을 수도 없고, 똑같은 필요도 없다. 이처럼 바뀐 패러다임에 적응을 하면 재취업도 쉽게 할 수 있다.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배정미 컨설턴트의 이야기다.

구직활동에 정석은 없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

“안녕하세요? 제가 배정미 컨설턴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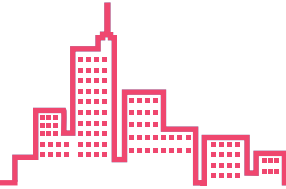
서울 구로동의 키콕스 벤처센터 3층. 인포 데스크에서 배정미 컨설턴트를 찾으러 왔던 얼굴의 아가씨가 활짝 웃는 얼굴로 나와서 맞아준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컨설턴트’라는 직함 때문에 으레 나이가 좀 드신 분이겠거니, 지레짐작을 했던 터라 살짝 당황스럽고 미안했다.

“직접 대면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가운데도 프락해 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나이’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하는 게 아니

라 취업시장의 동향이나 정보 등에 대해 알려드리고 재취업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상담하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상담이 진행될수록 저희들에게 감사를 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 아주 오랜만에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취업 시장의 흐름을 전혀 모르시거든요. 말하자면 우리는 정보의 전달자 혹은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죠.”

컨설턴트는 ‘취업 동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전문가들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직에 나선 분들의 능력과 경력, 경험을 존중한다. 상담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능력과 컨설턴트의 상담이 어우러져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빠르고 바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구직활동에는 정석이 없어요.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구직자라 하더라도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원하는 취업의 방식은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로요. 결국 구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업의 요구조건과 정확하게 매칭을 시키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면 아무래도 컨설턴트 역시 어느 정도 경험이 필요하죠.”

컨설팅 경력 7년차, 엠티얼굴의 ‘중견’ 컨설턴트

배정미 컨설턴트가 처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일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9년, 서울센터에서였다. 노사발전재단이 처음 문을 연 때가 2006년이니, ‘중견’이라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듯한 경력이다.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로 발령을 받은 것은 올해 초.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이 짧은 기간에 배정미 컨설턴트는 남다른 재취업을 한 건 성사시켰다. ‘한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싶다’는 장애인 부부였다.





04 희망 코디네이터, 중장년 커리어 컨설턴트

“서울서부센터로 온 뒤에 취업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제가 서울센터에 있을 때부터 상담을 맡았던 분들이에요. 제가 서울서부센터로 오면서 그분들도 덩달아 이쪽으로 와서 상담을 계속 이어간 거죠.”

객관적인 상황으로만 보면 이증, 삼중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였다.

“그리고 보니 딱 작년 이맘때쯤이었네요. 선한 인상의 어떤 남자가 상담실에 들어와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저 선생님, 혹시 제 아내도 같이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함께 들어오시라고 했죠. 그렇게 셋이서 상담실에 마주앉

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남편은 어깨가 살짝 기형이었고, 아내는 언어소통이 어려운 분이었어요. 물어보니까 청각장애 2급이라고 하시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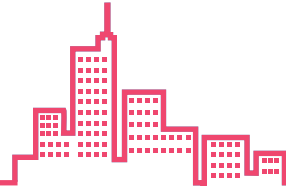
부부는 상담 내내 손을 놓지 않고 잡고 있었다. 쌀쌀해진 날씨 때문이 아니라 아내에게 든든한 남편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무심한 듯 잡고 있는 묵묵한 손에서 묻어났다.

어쩌면 배정미 컨설턴트가 이증 삼중의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부부의 취업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이 바로 굳게 잡은 부부의 손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의 정리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나네요. 2014년 9월 17일이었어요. 부부가 함께 숙녀복 제조업체에서 재단보조도 했고,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조립도 하셨대요. 그리고 상담소를 찾았던 그 당시에는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소개받은 패스트푸드점 주방에서 근무를 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데다 처우도 좋지 않아서 일단 남편만 퇴사를 한 상태였죠. 따지고 보면 참 불리한 게 많았어요. 부부가 모두 몸이 불편한데다 남자라 면역 할 줄 아는 것으로 생각되는 ‘운전’도 불가능했고, 직장과의 거리도 집에서 30분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러셨죠. 밤늦게





일하는 것도 안 되고, 부부가 함께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주선해주는 취업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배정미 컨설턴트는 일단 상황을 다시 정리했다. 부부가 포기할 수 없는 조건을 1, 2, 3순위로 정리했고, 포기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상담을 했다. 일단 남편의 기관지가 많이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는 재단 쪽 일은 포기하도록 했다. 반면에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내와는 떨어져서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함께 일할 수 있는 곳’을 1순위 목표로 세웠다. 말하자면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취업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도 계속 취업 정보를 수집하고, 센터 DB에 수록된 기업들에는 ‘장애인 우대 채용’ 조건으로 채용을 독려했다.

“저도 열심히 찾았지만, 남편도 열심히 구직활동을 했어요. 지원도 많이 하고, 그만큼 이력서도 많이 넣었는데, 면접을 하겠다는 곳이 아예 없더라고요. 구인공고를 낸 업체를 직접 찾아가더라도 갑자기 사람을 구했다고 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죠. 언젠가 남편분이 직접 찾아간 업체에서 취업이 되기는 했는데, 내부사정 때문에 취소가 되고 말았죠. 게다가 아내의 퇴직까지 맞물리면서 올해 여름은 부부에게 참 힘든 날이었을 거예요.”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취업도, 희망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극적이었다. 집에 있으면 자칫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운 한여름에도 센터에 나와 앉아 있거나 구직을 위해 백방으로 적어도 사나흘에 한 번씩 배정미 컨설턴트에게 연락을 해서 구직 상황에 대한 조언을 듣거나 정보를 탐색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가을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배정미 컨설턴트는 “선생님, 저 출근하라고 연락 받았어요” 하면서 가늘게 떨리지만 기쁨에 넘치는 전화를 받을 수 있었다.

몸이 불편한 데다 아내와 함께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던 만큼, 핸디캡은 컸다. 하지만 담당 컨설턴트를 따라 센터를 옮기면서까지 보여준 믿음과 간절함은 굳게 닫혀있던 취업의 문을 활짝 열리게 만들었던 것이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찾는 구직자라면 한두 가지 핸디캡은 누구나 있습니다. 일단 ‘나이’ 그 자체가 핸디캡이라 할 수 있죠. 이외에도 경력의 공백이나 인맥의 부족 등 핸디캡은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것을 ‘나의 핸디캡’이라고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스트



04 희망 코디네이터, 중장년 커리어 컨설턴트

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전혀 없죠. 오히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아예 제쳐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 일까를 고민하는 게 훨씬 낫죠. 구직자 여러분들이 이 부부에게 배울 것은 바로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두드리면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 말이에요.”

작은 산을 넘어봐야 큰 산을 넘을 수 있다

사실 배정미 컨설턴트가 속해 있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몇 차례 변신을 거듭한 이후의 이름이다. 센터가 처음 만들어졌던 당시에는 20세 이상의 모든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지원센터였고, 퇴직과 재취업만이 아니라 이직과 전직에 대한 상담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조직은 전직지원센터로 바뀌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로 개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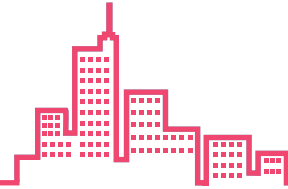
“사실 중장년층의 재취업 상황이 좋았던 적은 없었지만, 그동안 20대~30대와 다 같이 뭉뚱그려져 있어서 잘 몰랐죠. 그런데 따로 떼어놓고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그 상황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게다가 예전의 50대 퇴직자들하고도 많이 다르잖아요. 수명이 길어진 만큼 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일



해야 할 이유도 더 많고. 100세 시대의 명암이라고나 할까요?”

센터에서 하는 일은 의외로 참 다양하고 많다. 재취업 전략을 함께 짜거나 이력서 쓰기, 면접 대비 등에 대한 강의와 자료제공 등은 기본이고 심리적인 안정과 지지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힐링, 스트레스 완화 관리 법도 알려준다. 때때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귀농귀촌과 창업 관련 상담도 진행하고, 최근의 트렌드에 맞추어서 인문학 강의를 하기도 한다. 언뜻 보면 당장 취업과 관련이 없는 듯 보이는 것도 많지만, 심리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는 장기적인 취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중장년층



분들이 자기 표현을 잘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몸에 밴 거죠. 심지어 스트레스가 심할 때도 ‘남들도 받는데 뭐’ 하면서 참고 넘기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때로는 일부러 이력서 쓰기 등 작은 일을 시켜 보면서 칭찬도 하고, 격려를 하면서 힘을 북돋아주곤 합니다. 작은 산을 넘어봐야 큰 산을 넘을 수 있는 원리라고나 할까. 이렇게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게 되면 면접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에 맞는 바지를 입으려면 내 치수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경력이 많건 적건, 구직자들이 상담을 하러 와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안정적이고 오래 다닐 수 있는 곳’을 추천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배정미 컨설턴트는 “이제 그런 직장은 따로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한다. “예전에는 몰라도 이제 사회구조적으로 그런 직장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비

교적’ 안정적이고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직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죠.”

이제 100세 시대가 구체화되면서 중장년층에 맞는 일자리도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은 눈에 띄지 않는 편이다. 배정미 컨설턴트는 ‘인생 후반전’을 위해 새로운 직업이나 새로운 직종,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는 것에도 도전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남겼다.

“이제는 직장 and 직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잖아요. 게다가 어쩌면 인생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길고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생 전반기에 달렸던 것과 후반기에 달릴 것이 똑같은 필요는 없죠. 그렇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 맞춰서 살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갖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04 희망 코디네이터, 중장년 커리어 컨설턴트

현 · 장 · 에 · 서 · 만 · 난 · 사 · 람

우 · 문 · 현 · 답 /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노희승 컨설턴트·전국경제인연합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직장을 구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람을 구하는 기업도 많다. 그런데 왜 구직자는 취업을 못해서 고민이고, 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서 걱정일까? 그 답은 바로 현장에 있다. 이른바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다. 한 단계쯤 눈높이를 낮추고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을 확인해보면 생각보다 쉽게 취업의 답을 찾을 수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노희승 컨설턴트를 만나 우문현답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전경련에서 중장년들의 재취업을 알선해준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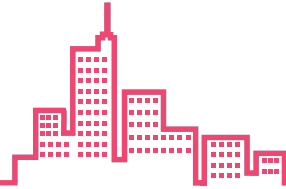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옆으로 끼고, 여의도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이곳은 바로 한국 경제의 구심점이자 전국 경제인들의 보금자리다. 이 건물 44층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자리잡고 있다. 그곳은 바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만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이다. 잠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센터 소개글을 살펴보자.

경제선진화에 기여한 1차 베이비부머의 집중 은퇴에 따라 그 유휴인력에게 생산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경제적 요구에 발맞추어 2011년 3월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 지정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발족하였습니다.

특히 전경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중견 대기업 퇴직 인력의 DB 구축에 특화된 기능을 갖고,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경륜을 지닌 숙련인력이 중소기업 경영역량 강화와 경영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취업을 알선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근본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소개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노사발전재단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지만,



전경련의 특성상 다소 차이점도 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중견 대기업 퇴직 인력의 DB 구축에 특화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대기업 퇴직 인력에 포커스 이듬해부터 중장년 취업 확대

“사실 전경련에서 일자리 알선을 해준다는 건 처음에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았죠. 하지만 햇수로 5년이 되어 가니까 이제 알 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소개글에도 나타나 있지만, 본래는 30대 주요 그룹과 MOU를 맺고 대기업 퇴직 인력에 초점을 맞춘 중견기업센터로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 이듬해 ‘중장년’에 포커싱이 되면서 중소기업으로 확대가 되었습

니다. 그동안 3,400여 개 회원사에 개인 구직 회원 1만여 명의 DB를 구축하고, 취업 알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희승 컨설턴트가 센터에서 근무를 한 것은 1년 9개월 정도. 올해 11월 까지 3,000명 정도가 취업이 되었는데, 해마다 평균 2,000명 정도는 취업을 한다고 한다. 센터의 직접 알선만이 아니라 센터에서 구축하고 있는 DB 정보를 활용한 ‘자가 취업’까지 포함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6명의 직원이 이뤄내는 성과로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우리들이 하는 일은 다른 센터 직원들과 대동소이합니다. 구인기업을 발굴하고, 구직자와 구인 기업 상담. 채용 알선 및 대행 등이죠. 그리고 때때로 교육이 있을 때면 ‘강사’로 변신을 합니다. 대부분 취업 전략



04 희망 코디네이터, 중장년 커리어 컨설턴트



교육인데, 취업 정보를 찾는 방법도 함께 교육을 합니다. 구직자들이 중장년 분들이라 정보를 찾는 데 조금 서툰 면도 있지만, 대부분의 구인 정보가 ‘청년’ 중심이라 중장년에 맞는 정보를 찾아내는 데 애를 먹는 경우도 많거든요. 올 11월까지 총 7차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찾은 이직 경력 우문현답으로 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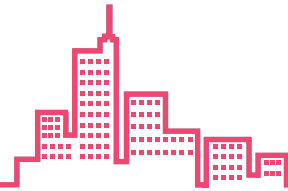
지난 6월, 한 구직자가 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180센티미터가 넘는 흰칠한 키에 당



당한 체구, 게다가 인상까지 좋아 보이는 한 성주(가명, 47세) 님이었다.

“가져온 이력서를 살펴보니깐 12년 경력의 품질관리직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찾은 이직’이 재취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더군요. 12년간 총 7차례나 이직을 해서 한 회사당 평균 재직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았고, 특히 최근 1년 사이에 두 차례나 이직을 한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기업 인사담당자라면 시쳇말로 ‘메뚜기’라고 낙인찍고 아예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기 십상이었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무했던 회사의 경영악화와 사업폐지 등 나름의 사정이 있었지만, 인사 담당자들이 그런 상황을 이해해주는 게 쉽지 않죠.”

사실 중장년 구직자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직장생활 20~30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지만,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한 뒤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건강상의 이



유 등으로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새로운 일 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한성주 님은 스스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직 많은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이나 상담보다는 기업 알선을 우선으로 진행했죠. 다행히 기업체 쪽 과도 이야기가 잘 진행되어서 재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취업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네요.”

작은 이직 경력이라는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구직자와 기업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매치시키면서 상담을 진행한 덕분에 이뤄낸 우문현답의 한 결실이었다.

“지방은 싫어요!” 안타까운 상황의 연속

물론 모든 일이 뜻한 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한성주 님의 취업이 결정되기 바로 전, 5월의 경험이 노희승 컨설턴트에게는 아직도 잊지 못할 아픔으로 남아 있다.

“2015년 5월, 기분 좋은 전화를 받았습다. 인재 추천 요청이었죠. 컨설턴트에게는 가장 반가운 소식 중 하나입니다. 채용 의뢰 기업은 (주)영림테크(전자부품 제조업)로 연 매출 600억 원, 근무자 110명 규모의 삼성 전자 협력사로 누구에게나 인기가 있을 만한 기업이었습니다. 기술연구소장에 적합

한 사람을 구하기 너무 어려워져 우리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수한 기술력과 안정된 거래처가 확보되어 있는 우량기업에서 사람을 뽑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기업이 전라도 광주 지역에 소재해 있기 때문이었다.

“센터 구직회원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자를 20여 명 선별하고, 일일이 연락을 해서 영림테크와 채용 조건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지방은 곤란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년일자리 희망넷에 한 달이 넘게 채용공고를 게재했지만 지원자는 5명도 안되더군요. 이 가운데 3명을 골라 추천을 했지만, 아쉽게도 채용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우수한 기업의 고급 경력직 채용이 구직자와의 매칭에 실패해 속상했고, 또 우리 센터를 믿고 의뢰를 한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저에게는 ‘역시 지방기업은 채용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재각인되었고,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의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가서 찾은 답, 역시 우문현답

‘지방 기업’에 대한 고민이 깊어가던 그



04 희망 코디네이터, 중장년 커리어 컨설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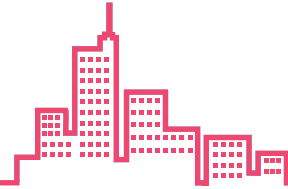
때, 또 다시 지방 소재 기업의 채용 의뢰가 접수되었다. 충남 천안에 있는 ㈜마이크로 컨텍솔루션(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연매출 440억 원, 직원 수 80명 규모의 우량 중소기업이었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에서 각각 우수중소기업과 강소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삼성전자 협력사로서 거래처도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이 업체 역시 소재지가 ‘충남’이라는 약점 때문에 우수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었다.

“채용 의뢰가 들어오면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난감한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지난번 겪었던 어려움이 반복될 것 같아서 후보자 선별을 하기 전부터 머리가 아파왔죠. 그때 마음으로는 앞으로 어떤 구직자든 지방 소재 기업을 추천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책상에 앉아서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직접 맞부딪혀 보자는 생각으로 다음 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이크로컨텍솔루션까지는 서울에서 약 1시간 30분 정도가 걸렸다. 주행 거리가 길어질수록 채용을 성사시킬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노승희 컨설턴트는 회사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생각을 짝 바꾸었다. 세련된 사옥과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 시설들이 먼저 마음에 들었고, 사내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이 낯선 이방인에게까지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에서 그 어느 기업보다 화기애애한 근무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사 담당자인 정해곤 부장님은 전화통화도 힘들 정도로 바쁜 분이었는데, 직접 현장까지 찾아가니까 의외로 차근차근 채용 직무와 원하는 조건 등을 설명해주시더라고요. 부장님의 안내에 따라 회사를 둘러보면서 ‘문서’를 통해서는 알 수 없었던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내심으로 ‘





이 정도 회사라면 누구에게나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역시 우 문현답이었습니다."

지방으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요?

노희승 컨설턴트를 비롯해서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남모르는 어려움이 있다. 채용 의뢰를 해온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을 나름대로 찾아냈다 하더라도 컨설턴트들의 입장에서는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로 덜렁 채용 기업을 안내할 수는 없다. 하지만 평상시 업무에도 소홀할 수 없으니 결국 야근을 하면서 전화를 걸게 된다. 이 때문에 때로는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거요?' 하는 싫은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지만, '구인'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대부분 양해를 해주는 편이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애를 썼는데도 매칭이 안 되고 취업이 불발

되면 구직자 본인보다 더 속이 상한다. 그것이 컨설턴트들만의 어려움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속상한 것은 '지방 기업'에 대한 편견 혹은 무조건적인 기피현상이다.

"사실 지방에도 앞서 말씀드린 (주)마이크로컨텍솔루션처럼 정말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지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상쇄할 만큼 좋은 조건들이 얼마든지 준비돼 있는데,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재취업에 나선 구직자 여러분, 이제 지방으로 눈을 좀 돌려보면 어떨까요?" /



04 희망 코디네이터, 중장년 커리어 컨설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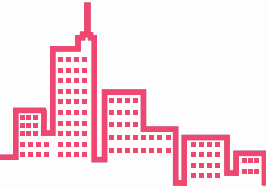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불안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나에게 맞는 자리가 있을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저런 고민도 많이지겠죠. 물론 어느 정도의 고민은 필요합니다. 후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요인을 신중하게 따져 보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것은 문제가 됩니다. 고민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적당한 고민, 그리고 행동이 뒷받침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60대 ○○님은 오랫동안 자영업을 운영하다 경기침체로 폐업정리를 하시는 중에 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힘겹게 일궈 낸 사업을 하나씩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심신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지친 마음에, 방문 초기에는 센터 서비스를 포함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방문하는 기관들의 서비스 내용은 내가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치고, 오랜만에 마주하게 되는 취업 시장은 어려운 것 투성이었습니다. 다시 재창업을 해야 할까, 취업을 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민 중에, 일단 평소보다 시간은 많으니 취업이든 창업이든 한 달 동안 관련된 강의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남으니 요즘 중장년층이 많이 취득한다는 자격증 몇 가지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컨설턴트다



자격증 취득 즈음에 다시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준비한 자격증 중 요양보호사 쪽으로 취업을 고려하는데, 구직기술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구직활동의 기본인 이력서부터 준비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경력이 없었기에, 기존의 경력과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0여년 현장에서 대인업무를 한 점,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기계 및 설비 다루는 일이 가능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업종은 다르지만 사람을 상대한다는 점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고, 보통 요양기관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시설관리)가 가능하다는 것 역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격증을 준비하며 치매 쪽에 관심이 생겨 3개월 정도 관련 센터에서 자원봉사한 경험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특별히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적절하게 연결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면접도 마찬가지로 경쟁력 있게 준비하였고요. 상대가 우려할 수 있는 부분(나이, 자영업 운영 경험 등)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 기관을 타겟으로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탐색까지 계획하였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지 이 주 정도 지났을 때, 취업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전략을 세운대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탐색하고 세 곳에 지원하였는데, 세 곳에서 모두 입사제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본인의 강점을 잘 활용하여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고, 구직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하셨기에, 빠른 시일 내 좋은 결과를 이루셨다고 생각합니다.

○○님도 분명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화도 나고 계속해서 고민이 늘어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은 계속해서 행동하셨습니다. 여러 기관 및 지인을 통해 조언을 구하고 계획과 행동을 보완해 가셨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결과를 이루셨지요. 구직활동 상황에 어느 정도 고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동이 따르지 않은 고민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민은 적당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 과정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04 희망 코디네이터, 중장년 커리어 컨설턴트



2014년 11월 처음으로 센터를 방문한 이○○님을 만났을 때 표정은 매우 근엄하고 자신의 경력에 대한 자신감도 확고했으나 어딘지 불안함과 압박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잡 코리아 등 취업 포털을 통해서 130여 곳 이상에 이력서를 제출했으며 단 한 군데에서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어려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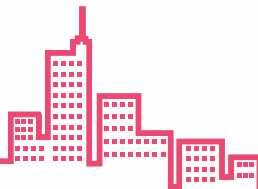
“10년 가까이 중국 공장의 주재원으로 있으면서 체계가 없던 공장에 프로세스를 혁신했던 나인데, 현실의 벽을 그냥 인정해 버리기에는 그간 일에만 몰두하며 달려온 자신이 너무 안쓰러워 용납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오랜 동안 떨어져 지내며 애썼었던 가족과도 적응 아닌 적응이 필요하여 집에 있는 것도 가시방석과 같이 여겨졌다고 합니다.

마침 구직자를 위한 개별심리상담 과정이 있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개별심리상담 4주 과정을 통해서, 취업 스트레스와 현실에 대한 스스로의 심적 압박감으로부터 탄력성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회 차를 지나면서는 스스로 어떤 회사에 가고 싶은지를 탐색하는 여유마저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센터에서 진행되는 해외취업 현장방문단에 참여하는 등 센터 구직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중국 천진에 생산관리 업무로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센터에 들러서 면접코칭을 진행하였고, 3월 14일 출국하게 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제 마음이



내가 컨설턴트다



다 뿌듯했습니다.

3월 말 지친 목소리로 이○○님이 센터로 전화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출국해서 중국에서 2주간 생활하면서 하루 2-3시간 자고 일을 했지만 체계를 세우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상황이고 기업 구조적인 문제가 커서 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며 귀국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만큼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도 유난히 먼 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만 같은 이○○님을 무슨 말로 위로해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님은 센터에 와서 제 2의 구직활동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고, 저 또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는 적극 도와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격려했습니다.

그 때 마침 KBS에서 <나 출근합니다> 출연자를 모집하는 기간이었고 이○○님을 가장 먼저 떠올렸던 차, 4월 10일 KBS <나 출근합니다> 출연을 고민 중이며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사실은 너무 고민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에 그리고 주변에 자신이 실직자인 것을 광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채용이 된다는 보장도 없이 무모한 도전은 아닐까 한 시간여 상담을 하면서도 이○○님은 답을 얻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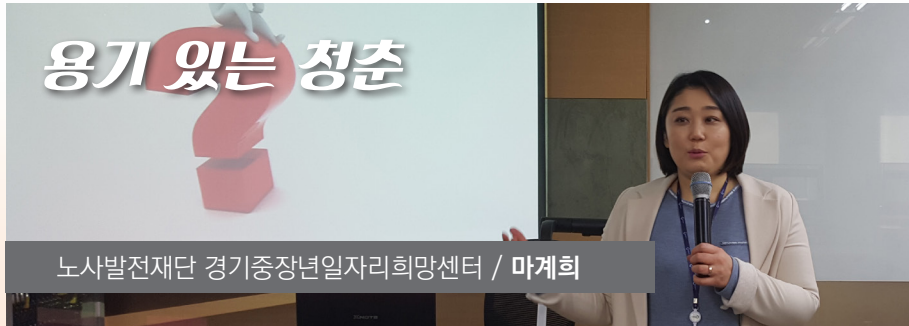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한 기회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날 이○○님은 가족과 상의한 끝에 출연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세계 가장 먼저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님은 <나 출근합니다> 출연 기업에 최종 합격이 되었습니다.

재취업이 인생 2막의 완성은 아니지만 이○○님의 절실함이 가져다준 재취업 성공은 또한 인생 2막 전반에도 성공과 보람을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이○○님의 취업 성공과정을 지켜보면서 스스로의 의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과 또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 중요성도 새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사례가 580만 중장년들에게 재취업 희망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04 희망 코디네이터, 중장년 커리어 컨설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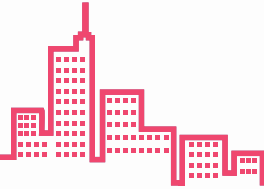
2014년 12월초 진행된 [00 명예퇴직자 재도약프로그램] 사전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고객님을 처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반신반의한 표정으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별말씀도 없으셨고 궁금한 질문도 없으셨습니다. 제 얘기도 듣는 등 마는 등 “신청서나 쓰겠다.”고 하셔서 저도 퇴직 동료분들과 함께 재도약프로그램을 신청하시나보다 했습니다.

재도약프로그램 시작 당일, 뜻밖의 한파에 재도약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은 사전신청에 비해 단 6명으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 인원으로는 집단프로그램을 끌어나가는 것이 가능할까, 이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 끌어낼까, 혹시나 더 참여해 주실 분들이 오고 계시진 않을까, 등줄기에 땀까지 흐르던 제 기우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조○○ 고객님이셨습니다. 첫 만남과 달리 센터에 들어서자마자 밝은 목소리로 먼저 인사하시며 당일 프로그램 참여자가 적은 것에 대해 같은 00기업 출신으로 미안하다며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잔잔한 감동과 함께 용기가 생겼습니다.

6명 소규모로 진행된 재도약 프로그램은 뜻밖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여섯 분이 강의흐름에 맞춰 누구라 할 것 없이 적극 참여하시며 발표를 하시고 진행하는 컨설턴트들 역시 강의시간에 1:1 질의응답과 개개인의 사례접목을 이끌어낼 만큼 3일간의 교육이 말 그대로 명예퇴직 후 재도약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구직 전략과 다



내가 컨설턴트다



양하게 일하는 방식을 접할 때에는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집중력을 보이셨습니다.

00기업에서 23년간 총무/회계 등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조○○ 고객님은 지난해 4월 명예퇴직 후 다방면으로 구직활동을 실시하셨고, 수차례의 채용박람회는 물론 고용센터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까지 여기저기 일자리 기관을 거치셨던 터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도 걸포장만 요란하고 거기서 거기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대기업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이 되지 않자 급한 마음에 건설현장 일용직까지도 해보신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치며 조○○님은 명예퇴직 후 스스로 열심히 했다고 여겼던 그동안의 구직활동에서 잘못된 점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력서도 없이 구경 가듯 채용박람회에 갔던 일, 이력서만 올려 두면 구인기업에서 연락이 올 거라고 여겼던 진정성 없는 온라인채용사이트 이용, 총무·회계 23년을 근무하고서도 경력기술은 커녕 업무성과 한줄 기록하지 않았던 이력서, 나이 때문에 이젠 취업도 어렵다며 불평만 했던 시간을 스스로 돌이켜 보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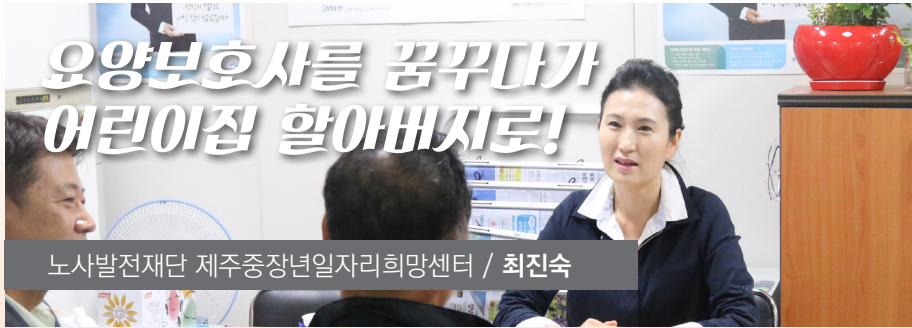
그렇게 조○○님의 구직활동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재도약프로그램 참여 후 이력서를 수정하여 워크넷을 통해 장년인턴취업지원사업에 지원을 하셨고 며칠 뒤 장년인턴 합격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경력과는 달리 장년인턴으로 생산기술을 새롭게 배우며 군포에서 화성까지 출퇴근을 하고 계십니다.

대기업 명예퇴직 후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뛰어드는 용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서운 한파를 뚫고 3일간 낮선 기관에서 재도약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용기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23년간 해왔던 일을 접어두고 장년인턴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기술을 배우겠다는 지원하는 일 또한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청춘, 곧 중장년입니다. /



04 희망 코디네이터, 중장년 커리어 컨설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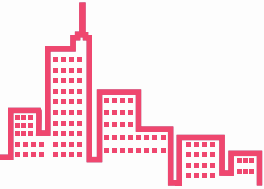
지금 이순간도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선생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어미오리와 새끼오리들의 모습과 같은, 본인 손주보다도 더 귀여운 아이들을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다는 분.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본인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힘찬 발걸음으로 매일 어린이집으로 일찌감치 출근을 하게 된다는 백삼권 선생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 직장에 28년간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로비에서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보면 먼저 다가가서 요구사항을 알아보고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여 해결해 드릴 때 행복감을 느끼고, 그럴 때 마다 정년퇴직 후에 사회에 봉사를 하며 작은 경제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해 오셨다고 한다.

정년퇴직을 앞두고는 '일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일등이 될 수 있다'는 속담과 같이 취업할 수 있다면 어떤 직업이라도 마다하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인터넷 구직사이트, 노인 관련 취업사이트, 관공서 취업사이트 등 다양한 경로를 메모하며 나름 구직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다. 그리고 퇴직과 동시에 먼저 본인을 사회에서 시험하고 싶어 다중이용시설의 청소업체에 바로 취업하여 쓰레기를 수거하여 분리하고 주차장에서 빗자루질도 하셨는데 제주지역 특성상 좁은 지역이라 지인을 많이 만나는 게 불편하기도 했다고 한다. 직장



내가 컨설턴트다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또다시 실업상태로 돌아와 멍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한다.

실업급여수령을 위해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하던 중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제주센터)를 들르시게 되었다. 구직신청서 작성과 면담을 통해 백삼권 선생님의 열정과 여유 있는 성품을 알 수 있었다.

상담 후 전직방향을 재설정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우선 제주센터에서 주관하는 '시선을 사로잡는 이력서 작성법' 등 전직지원서비스 교육과정을 7회 참석하였으며, 취업알선도 모바일 문자로 5~6회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진행하였다. 때마침 삼화주간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를 채용한다고 하여 이력서를 제출했다. 면접 후 합격이 되셨지만 본인이 남성 요양보호사가 여성을 케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으며 기업에 정중히 거절하고, 계속하여 채용정보 제공과 함께 정서지원 상담을 진행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전직 방향을 본인이 아이들도 좋아하시고 시설관리도 가능하다고 하여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어린이집 쪽으로 잡고 노력하게 되었다. 그리고 뜻을 이루었다.

백삼권 선생님은 본인과 같은 장년실업자는 취업사이트나 구인광고를 통한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와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만이 구인 회사와 구직을 하고자 하는 중장년 구직자를 연결하여 경력과 적성에 맞도록 맞춤형 일자리 알선을 해주는 곳이라고 하셨다.

오늘도 백삼권 선생님은 개구쟁이들이 맘껏 떠들며 놀다가 "안녕하세요" 하며 배꼽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무엇을 더 해 주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며 즐겁게 일을 하고 계신다.

백삼권 선생님은 취업 성공 사례, 모범 사례로 중장년구직자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며, 추후 구직자 대상 특강 시 취업사례 강사로 초청하고 싶다. /



04 희망 코디네이터, 중장년 커리어 컨설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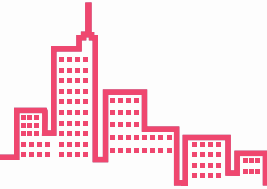
나는 매일 생각합니다. 고객님께 나는 무슨 도움을 주고 있는가. 저는 고객분들이 자신을 제대로 보도록 하는 것, 무엇보다 자신의 장점, 자신이 이룬 일을 스스로 챙기고, 자부할 수 있게 하는 게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 하나.

원주시 호저면 하반기 환경정비요원을 뽑는다는 소식을 들은 김신형(57세) 고객님이 센터를 방문하여 지원 의사를 밝히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유는 서류작성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밤 근무를 해야 하는 생산직으로만 직장을 다니다 건강을 이유로 전직을 희망하던 중 생각보다 취업의 문턱이 높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 첫 번째 벽이 구인 정보와 서류작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용기 내어 센터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청 구인 건은 대부분이 수기 작성보다는 워드 작업이었고 특히, 자기소개서 작성 부분이 어려워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김신형 고객님 역시 일 자리에 도전하고 싶었지만 그런 사정 등으로 엄두를 낼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력서 사진 준비,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경력은 없지만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지역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장점을, 상담을 통해 발굴해내고 직무파악을 한 후 서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진,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차례로 준비해서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서류심사 합격 통지



내가 컨설턴트다



를 받았습니다. 1차 서류통과 후 면접에 관한 팁을 전달하고 2주 후에는 면접 합격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합격의 요인은 채용 하는 곳에서 원하는 이력서를 맞춤으로 준비했다는 것과 본인의 성실함이 잘 드러나고 직무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다고 강조된 점, 면접 시 타 지원자보다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 할 수 있도록 하는 충실 면접 준비가 돋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6개월 뒤 김신형 고객님은 센터를 재방문하여 다시 재취업 서류 작성을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연 단위로 계약하는 형태의 고용이다 보니 재공고를 통해 채용 공고를 내게 되었고 다시 수많은 구직자들과 경쟁하여야 한다 생각하니 큰 심리적 부담을 갖고 계셨습니다. 다소 긴장한 김신형 고객님을 안심시켜 드린 후 이번에는 지난 6개월간의 현장 직무 실적을 함께 분석하였고 김신형 고객만의 직무 노하우를 서류에 담기로 하였습니다. 나만의 강점을 살려 작성된 자기소개서는 그간의 직장에서 보여준 증명서이기도 하였습니다. 서류에 담은 내용이 부족했던 6개월 전과는 확연히 드러난 성과분석을 보고 다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어 면접에 관한 팁을 전하며 컨설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완성된 지원서는 메일로 지원해 드렸고 그로부터 1주일 후 환하게 웃으며 센터를 방문, 직접 합격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컨설턴트로서 이 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지원자에게 있어 정확한 직무 분석과 성과 분석은 재취업에 큰 원동력이 되게 함을 알려주는 사례였으며 나의 노력이 구직자에게 큰 힘을 갖게 하며 재취업 성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된 사례였습니다.

이 맛에 오늘도 나는 신발 끈을 조여 맵니다. /



04 희망 코디네이터, 중장년 커리어 컨설턴트



제가 경북동부경영자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컨설턴트로 일을 한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중장년 고객 분들과 상담을 통해 느꼈던 점은, 회사사정이나 고객 분의 상황변화로 중간에 실직하신 분들과 정년퇴임을 하시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 분들,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한다.’ ‘공과금 등 세금이 밀려서 당장 일을 빨리 구해야 한다.’ 거나, ‘등산도 한 두 번이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매양 똑같으니 그 이후 할 일이 없어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힘들다.’는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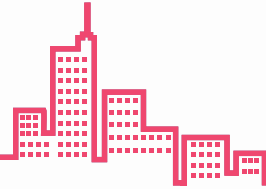
한편 40대나 50대 초반 중년 여성고객 분들은 가장으로서 어느 정도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급여조건을 찾으면서도 출퇴근이 일정한 업체를 원하셨습니다.

2015년 5월 6일 컨설팅 상담해 드린 만 43세 여성고객분은 건설회사에서 3년 정도 일을 하셨고, 컴퓨터 관련 업체에서 판매 및 경리 업무를 하셨습니다.

두 명의 자녀가 있으신데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어서 아직 어린 나이인지라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분은 맞춤형 교육생 분으로 새로 바뀐 회계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 다시 배움의 기회를 갖고 3개월 동안 아이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계획으로 우리 협회에서 주관하는 맞춤형 ERP(인사/정보/물류관리) 물류교육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컨설턴트다



ERP 맞춤형 과정을 배우면서 기본적인 전산자격증과 ERP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교육을 배우시면서 간담회 형태를 통해 개인 상담도 해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등학교 어린 막내 자녀가 있어 먼 거리는 힘들고, 차량이 있으니 가까운 거리로,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 사무직을 원하셨습니다.

그래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마음의 여유를 어느 정도 찾으셔서 다시 재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차 동행 면접 시에는 조건이 좋았지만 관련 분야경력 부족과 사용프로그램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안 되셨지만, 2차 동행 면접 시에는 관련 경력과 사용프로그램에 대한 자신감, 관련 분야 이외에도, 유관 경력과 자격증 등이 합쳐져 합격하는데 상승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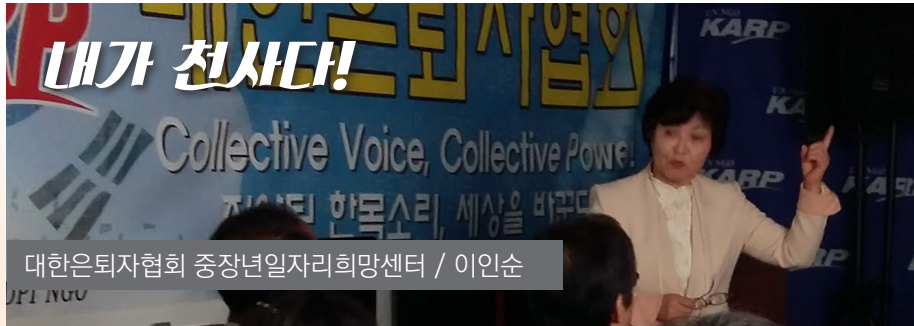
합격하시는데 더욱 중요했던 건 역시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관련 경력 업무였기에 사장님도 일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경력자 이셨고 고객님의 성격이 밝고 맞춤형 교육을 받으면서 반에서 반장 역할을 하시면서 반 구성원을 통솔하고 리드할 만큼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있고 긍정적인 성격이라서 사장님이 채용하시는데 크게 주저하시지 않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컨설턴트 일을 하면서 중장년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일'도 좋지만,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는 과감히 버리고 기존 경력과 새로 얻어진 자격 기능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관련 분야에 문을 두드린다면 연령에 대한 장벽이 높다고 해도 반드시 뛰어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도전해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조정하고 조율해서 가능성 있는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를 쏟으시기를 응원합니다. /



04 희망 코디네이터, 중장년 커리어 컨설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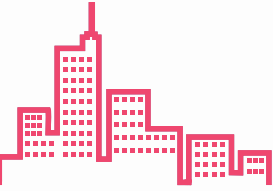


늦가을 오후 거리에 노오란 은행잎이 황금주단을 깔아준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진다. 때마침 책갈피에 넣어두었던 영화 티켓 2장이 상봉동 메가박스로 나를 인도한다.

‘마션’. 오랜만에 위대한 영화를 보고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

화성에 홀로 남겨진 NASA 아레스 3 탐사대 마크 와트니의 생존기와 그를 살리기 위한 동료탐사대원들, NASA 연구진, 그리고 전 세계인이 함께 하나가 되어 응원하며 그를 살려내는 감동적인 영화다. ‘포기란 없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야하는 생존 포인트, 생존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인공 공처럼 상담사가 소개하려는 최무송 선생님도 그와 닮은 면이 많다.

40대 중반부터 15년 동안 사업을 하다 IMF로 줄줄이 도산하던 때, 그 역시 그만 쫓딱 망했다. 좌절감에 죽고 싶은 마음 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돈도 기술도 없어 그 시절 할 수 있는 일이 경비, 청소밖에 없었다. 경비 5년, 청소 10년을 했다. 청소 10년 중 청소반장으로 8년을 하며 1,000여만 원 되는 기계까지 구입했다. 표창장도 받고 성실성을 인정받았지만 나이의 장벽은 어쩔 수 없었다. “건강하다, 젊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천만 원짜리 기계까지 주겠다.”고 아무리 외쳐도 오르는 곳은 없었다. 최 선생님은 아침 출근하자마자 전화를 한다. 전날 면접 본 이야기,



되짜 맞은 이야기 등 본인 노력과 컨설턴트가 소개한 곳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질문하며 조언을 청한다. 적극적이고 예의바르다. 그리고 또 찾아갈만한 곳을 소개해 달라고 도움을 청한다. 이렇게 족히 30여 곳은 소개한 것 같다.

찌는 어느 여름날 그의 노력이 안쓰러워하던 차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져 한 취업 동아리를 소개해 드렸다. 다녀오셨다. “삼겹살과 냉면, 막걸리 한 사발을 드시며 고용노동부에서 멋진 대접을 받았다.”며 너무도 고맙다 인사하신다. 오전, 오후 일 자리를 찾아 소개 하던 차에 방금 나온 영화관을 알선했다. 빨리 찾아가 이력서 지참하여 면접을 보시라고 주선했다. 따르릉~ 퇴근시간 몇 분 전 전화벨이 울린다. 최 선생님이다.

가능성은 높단다. 면접관은 좋아라 하는데 그 윗분의 허락이 남았다고 가슴을 졸인다.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합격하셨다. “내일부터 출근한다.”며 환희에 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상담사인 나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6월 12일 (주)세안텍스, 상봉동 메가박스 청소직 취업 성공’ 등록을 했다. 그의 나이 75세다.

건강 조심하시며 잘 적응하시라고 응원드렸다. 마음 한편에선 기쁨과 애잔함이 남아있었다. 그러던 10월 어느 날 퇴근길에 찾아와 미역과 잡곡, 영화티켓 2장을 주셨다.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극구 사양하지만 생존할 수 있게 도와주었는데 사람이 도리를 모르면 안 된단다.

알고보니 최선생님은 젊은시절 20여년간 전매서공무원으로 근무한 공직자였다. 나누고 봉사하는 삶이 몸에 밴 분이시며 현재는 원로목사로 교도소 사목봉사 및 전국 웅변협회교육국장으로서 봉사하며 행복해 하신다. 그의 부친께서는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애국지사 집안으로 지난 8.15광복절엔 유족 표창장을 받기도한 훌륭한 분이시다.

청소일은 누구보다 잘하신다고 베테랑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성자가 된 청소부’를 꿈꾼다. 또한 청소 분야의 전문가로 몇 년 동안 노력해온 에코크린 용역전문업체 사업허가를 받아내셨다. 이제 사업가를 꿈꾸는 노익장을 발휘하고 있다.

최 선생님을 컨설팅하면서 우리상담사들은 한 사람에게 직업만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꿈도 함께 찾아주는 멋진 삶의 천사들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

04 희망 코디네이터, 중장년 커리어 컨설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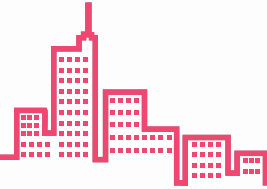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참으로 많은 부류의 고객을 만납니다. 다들 사연도 많고, 그런 만큼 고객님들로부터 배울 것도 많습니다.

지난 6월, 매달 본 센터에서 주최하고 있는 미니 일자리 박람회에서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인 지용학(만 50세) 선생님입니다. 박람회에 참가한 선생님들과 대면상담을 진행하는 중이었는데, 쭈뼛거리며 하시는 말씀이 좀 낯설고 이국적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냐고 여쭙봤더니 북한에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일자리를 열심히 찾고 있지만, 북한 사람인 자기를 쓰려고 하는 곳이 없다며 구직활동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소 대하던 이가 아니면 경계하게 되는데, 하물며 기업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상담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을 확인하던 차에 지게차 운전은 할 줄 알아서 그쪽 분야로 일을 찾기 위해 이렇게 박람회까지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개최된 박람회에서는 지게차 운전 직종을 구인하는 업체가 참가하지 않아, 현장에서 매칭을 시켜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본 센터에서 1:1 맞춤상담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며칠 뒤 6월 15일, 지용학 선생님은 약속대로 센터를 방문하셨고 저는 심리안정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을 진행하며 현재 채용진행 중인 구인업체 중 선생님이 희



내가 컨설턴트다



망하는 근무조건과 부합하는 곳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센터의 일상적인 서비스이고 컨설턴트가 하는 마땅한 일이었는데, 지용학 선생님은 자신들 취업을 이렇게 맞춤형으로 지원해주는 남한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며, 어렵게 북한에서 탈출하게 된 경위와 과정을 설명하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 후, 저는 구인업체 측에 이력서를 보내기 전 편견 없는 서류전형을 위해 상담내용을 인사담당자와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인사담당자께서도 지용학 선생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면접전형을 실시하였고 마침내 채용하였습니다.

지용학 선생님의 취업을 지원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 국민, 시민,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누구에게나 똑같은 꿈입니다. 자신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구하는 것,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디딤돌을 놓는 것, 그 꿈은 똑 같습니다. 다만 색깔이 다를 뿐.

저희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중장년층의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중장년층 본인의 열정과 의지 없이는 취업이 어렵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을 하고 연락 없이 오지 않는 분, 동행면접 당일 연락두절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분을 생각합니다.

지용학 선생님은 죽을지도 모르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와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구직상담, 취업알선, 일자리 박람회 등 각종 유익한 제도들을 잘 활용하여 취업하셨습니다. 만약 그 분이 일자리 박람회에 방문하지 않으셨다면, 혹은 추후 본 센터에 한 번 더 방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기업체 인사담당자와의 면접일정에 가지 않았다면 취업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다른 고객님들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대한 믿음, 취업을 위한 의지와 열정을 기대합니다. 힘껏 돕고, 함께 하겠습니다. /





기관 전화번호 안내

서울지역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6,7,8,10층(공덕동) / 02-6021-1100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3층 / 02-3488-1900

대한상공회의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남대문로4가) / 02-6050-3122~3, 3130

대한은퇴자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울시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 02-2142-8930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44층(여의도동) / 02-6336-0613~5

중소기업중앙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 02-2124-3292~5

한국무역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3층 301호(삼성동) / 02-6000-5396

인천지역

노사발전재단 인천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5층 / 032-260-3800

경기지역

고양상공회의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장항동) / 031-901-9197

노사발전재단 경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49, 3층 / 031-8014-8500

안산상공회의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0(고잔동) / 031-410-3031

파주상공회의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328(금촌동329-158) MH타워 8층) / 031-8071-4249

평택상공회의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149(신대동) / 031-1899-1495

강원지역

노사발전재단 강원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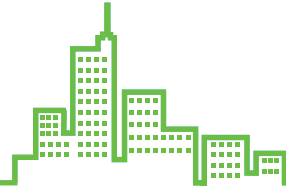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528, 2층 / 033-735-0967

충청지역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2, 6층(문화동) / 042-253-7051





충북경영자총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32, 5층(송정동) / 043-221-1397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457번길 31(온천동) / 041-559-5762

영남지역

경남경영자총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 2층(외동) / 055-266-8317~8

경북경영자총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35(공단동) / 054-461-5520

경북동부경영자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8, 2층(대잠동) / 054-727-2021~2

노사발전재단 부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81, 10,11층 / 051-860-1300

노사발전재단 대구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 7층 / 053-550-3000

노사발전재단 울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울산 북구 산업로 1016, 1층(친환경급식센터) / 052-289-8974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76, 3층(범천동) / 051-647-0452~3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1번길 60-1, 301호(무거동) / 052-277-9491

호남지역

광주경영자총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121(북동 190-1)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 062-609-8963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61, 5층 / 063-222-1840

노사발전재단 광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154번지 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 062-960-3237

목포상공회의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173번길 29(중동2가) / 061-247-4060,5060

전남경영자총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녹색로 1641, 2층(덕월동) / 061-741-0096

제주지역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2층 / 064-710-4501

[2015년 중장년 재취업 우수 성공사례]

‘페르다임’을 바꿔라!

-재취업 성공사례-

취 재 : 이현건, 윤지용

사 진 : 곽봉현, 소영환

교 정 : 서인애

교 열 : 노향래

디자인 : (주)굿플러스 커뮤니케이션

제 작 : 열림기획(주) 044)868-5055

발행인 : 엄현택

편집인 : 성기운

발행일 : 2015년 12월 15일

발행처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 www.nosa.or.kr / www.4060job.or.kr

주 소 : (0421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6,7,8,10층

대표번호 : 02)6021-1000 FAX : 02)6021-1474

◎ 이 책의 저작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